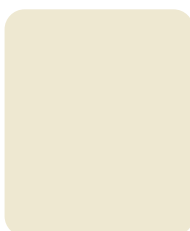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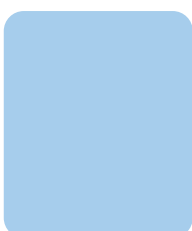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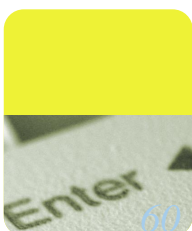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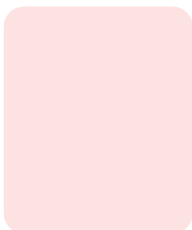




2006 Vol.24 Chungnam Women's



1. 권두원

_ 본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 이재우 02

2.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한

_ 민선4기 도정운영방안 05

3. 정책제언

_ 충남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제언 / 황창연 13

_ 국제결혼에 대한 시대적 의미 고찰 및 정책제언 / 김종철 22

4. 지역문화축제 38

5. 논단

_ 5. 31 지방선거를 통해본 여성정치참여의 성과와 전망 / 이숙애 48

_ 새로마지플랜 2010의 과제와 노인복지의 전망 / 우하영 52

6. 생활글

_ 서산시민은 평생배운다 / 김인숙 58

7.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마케팅 전략 / 이영세 60

8. 알림

_ 도 및 시·군 소식 67

_ 본원소식 79

9. 충남여성포럼

_ 26일 청양에서『제18회 충남여성포럼』토론회 가져 84

_ 10일 공주대학교에서, 포럼회원 및 지역여성 200여명 참석 86

_ 22일 백석대학교에서, 포럼회원 및 지역 교육계인사 등 150여명참여 87

10. 알아봅시다

_ 충남도 자원봉사황 / 구순예 88

11. 개원이후 연구·교육 실적 91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재우

본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다사다난했던 2006년이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분들께 저희 개발원 임직원들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으로서 여성문제에 대한 세계동향과 UN의 여성정책 등을 분석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여성에 관한 정부시책 그리고 여성계의 움직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남도의 당면한 여성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기초조사와 심층연구 등을 병행하면서 여성복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근래 흔히 말하는 세방화라고 하는 선진적인 시각에서 저희 개발원은 여성에 관하여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연구의 폭이나 심도에 있어 타기관에 많은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지방여성정책연구원으로서는 흔치 않게 중앙의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농림부나 문광부의 전국단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발표하여 지방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에 많은 중앙의 연구소와 연구와 무관한 기관들까지도 앞을 다투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귀화여성에 대해서도 충청남도는 농어촌이 많습니다. 1980년대부터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는 심각했었습니다. 그래



서 저희 개발원에서는 농정유통과 소관이지만 이 귀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농정유통과에 프로젝트를 신청하였습니다. 일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간파했던 담당 공무원의 마인드에도 감사하고 있으며, 이 일을 우리가 잘 해내리라고 믿고 맡겨준 열린 자세에도 감사했습니다. 더욱 고마운 것은 일이 자기 앞에 떨어지면 마다하지 않고 연구면 연구, 교육이면 교육 모두를 잘 수행해 주었던 우리 연구원들의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개발원에서는 심층적으로 여성문제를 연구하고 또 교육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그 변화의 속도나 추세의 흐름이 때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리만큼 내용이 복잡하면서도 시사성을 갖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연구나 사업만으로는 제때에 그러한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같은 빠른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수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메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개발원의 연구결과 및 교육사업 그리고 중앙과 국제적인 정책 방향 등 여성, 교육, 문화, 복지 등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만한 정보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이메일 서비스를 도청 및 16개 시군에 수시로 보내드리는 사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을 위한 구심체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입니다. 현재 충남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각종 여성단체등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활용하는 기관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개발원에서 이들 기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지역주민과 여성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훈련 프로그램등을 제안해 주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이미 경기도 내에 있는 여성관련 인력개발센터와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이나 성인지적 정책수립 과정 등을 저희 개발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 개발원을 최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적극적 대안이 우리도가 양성평등에 관한 평가나 성인지 영향평가 등에서 최상위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결혼이민자 대책을 위한 방안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충남이 향후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정책 마련을 체계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정책과 사업,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과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들입니

다. 그동안 저희 개발원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사업은 젊은 여성인력을 농촌 및 충남지역사회에 충원할 수 있고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서도 필연적인 사안인 만큼 다른 자치단체 보다 앞선 정책과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이 다양하게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유지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입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유지 및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질과 양의 확보가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경우 운영 주체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자원봉사자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저희 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자원활동기능을 통합관리 및 지도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희 개발원이 충남도정과 16개 시·군정 그리고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결과를 제공하며, 그 결과를 환류하여 저희 개발원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Chungnam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민선4기 도정운영 방향

민선 4기는 지난 11년의 지방자치 성과를 계승 발전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갖고 있으며, 행정도시 건설, 도청이전 등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동적인 도정운영과 강인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겠다. 민선4기 충청도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청이전 등 최대의 기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민선 3기까지 다졌던 지방자치의 안정적 토대위에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민선시대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 감각과 새로운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창의와 도전, 진취적인 기상으로 위대한 신충남시대를 창조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중심을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10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청신도시 건설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조성 하였으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지역인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에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도청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재정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중앙계획에 도종합계획



등을 반영하며 우리도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청이전은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의 중심지로 변화할 것이며, 국가 재도약의 견인이 될 것이다. 또한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도는 남북 128km와 동서 165km의 거리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도 4차로율은 46%로 전국평균 41%를 상회하고 있으나 지방도 4차로율은 전국평균 7%에 못미치는 2.5% 수준으로 이동소요시간은 남북간 2시간, 동서간 3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IT, BT를 활용한 첨단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실현하며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간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이며 국지도·지방도 확충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항만·철도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7개노선을 보유하고 장항선 개량, 국도·지방도 4차로 확충으로 1시간대 생활권을 가시화 하여 도내 균형발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FTA 등으로 농어업도 적자생존의 원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어촌 활력을 제고하는등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농정을 실현하고 경쟁우위 품목을 개발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IT, BT를 활용한 첨단 고부가가치 농어업을 실현하며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농간 균형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핵심사업을 살펴보면 농업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체험마을을 조성하는등 21세기형 선진농업을 실현하고 친환경농업실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며, 마늘·생강등 특화작물 집중개발을 위한 클러스터화를 추진하며, 해외시장 개척단·관촉전 운영 등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04년말 기준의 농가부채(21백만원)가 전국 최저수준으로 농가소득 전국 3위(31백만원)권을 계속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미래성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Display(04년 기준) 매출 84억달러로 우리도가 세계시장 23%를점유하고 있으며, 자동차(04년 기준) 49만대(현대 30, 동희오트 19, 전국 12.1%), 석유·정밀화학 삼성토탈, 오일뱅크, GS칼텍스 등이 입지하여있고, 에스오일 등 추가입지 예정으로 석유화학 집적지로 성장중에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SOC를 확충하며, 산업입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연관기업 집적을 위한 기업유치 및 창업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며 대산을 여천, 울산 수준의 석유화학 단지로 육성할 것이다. 주요핵심사업을 살펴보면 200여개 핵심협력기업을 유치하여 Display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크리스탈 컨퍼런스(CVCE)를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대회로 개최하며 천안~서해안 자동차·부품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대산산업단지 지정으로 용수 및 전기 등 SOC를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인당 GRDP 3만불, 교역규모 1,0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민선4기중 신규고용창출 154천명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섯째,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도청소재지 부재로 문화예술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이 풍부한 반면 관련산업 인프라가

타 시·도보다 열악하여 체계적인 관광객 유치에 곤란하고 도내 관광객이 지역별·계절별 편중(서해안, 여름철 57%)되어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유치의 어려움으로 관광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지역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소재로 하는 지역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청이전과 연계한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투자유치를 통한 관광지 개발 가속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상품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주요핵심사업을 살펴보면 종합문화회관 건립, 계룡군문화·백제문화 엑스포를 개최하며(08년, 10년), 서해안을 한국 최고의 해양·휴양관광지로 육성하며, 백제·내포문화권 개발 활성화,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박차를 기하며 지역 문화산업 육성 중심체인 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종합사격장을 건립하는등 체육기반시설확충 및 생활체육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시설 102개(06년 6월)에서 117개(10년 6월)로 증대시킬 예정이며, 첨단문화·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종합문화회관 건립, 계룡군문화·백제문화 엑스포를 개최
하며(08년, 10년), 서해안을 한국 최고의
해양·휴양관광지로 육성

여섯째, 사랑과 희망의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현에 힘쓰고자 한다. 저출산·고령 사회 도래 및 양극화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건강격차 심화 및 공중보건 위해요소의 다원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

의 실패러다임에 부응하고 어려운 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기능 확충과 예방적 보건진료를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핵심사업을 살펴보면, 어려운 계층을 위해 학습에 기반을 둔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능력있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박람회 등), 저출산·고령화 연구소 설립 및 운영,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공립치매병원 확충과 노인휴양타운 조성,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을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소외계층의 자립기반 향상과 장애인 고용(공공부문), 노인 일자리 창출,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모두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복지충남 구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일곱째, 자연환경 지역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도는 산·강·바다가 어우러진 생태환경의 보고이다. 그러나, 북부 지역의 대규모 사업 시행으로 대기 질이 악화되어 있고, 수질보전기초시설 가동에도 불구하고 금강오염이 기증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증가로 쓰레기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자연환경 생태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생태지도 작성 및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맑은 공기21 추진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과학적인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수질의 획기적 개선과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남·금북 정맥 중심의 광역 생태축 조사 및 생태지도 작성과 대기오염 억제를 위한 완충녹지 확충,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을 추진하며 수질오염 총량제 실시(공주등 9개 시군), 수질개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연친화적 개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 수질개선(금강 중·하류), 쓰레기 재활용률이 증가할 예정이다.

여덟째, 재해·재난예방으로 도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재해·재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발생(재산피해 1,515억원, 사망자 3명), 재난발생(11,380건, 인명피해 18,762명), 화재발생(1,385건, 인명피해 107명)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고령화 사회 진입등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노인인구 13.3%)

이에 충청남도는 재해취약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화재를 줄이는 시책 추진으로 도민 생활안전에 기여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대형 재해·재난 사고를 방지할 것이다. 주요핵심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지역 및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며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주택화재와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고 119종합안전정보센터 운영 및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며 통합적 재해·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해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며, 인명피해는 없도록 할 것이며, 화재발생을 10%대로 감소시키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10%대로 감소시킬것으로 판단된다.



도민이 IT문화를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해서
'살기좋은 U-충남'을 건설하고자 한다.



아홉째, 인재육성 및 U-충남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현재 충청남도는 국제화시대에 따른 도민의 영어교육 기대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영어교육환경, 과도한 사교육비로 부담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인적자원 개발기능이 미흡하고 농어촌 지역 대부분의 교육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관련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각종 교육인프라 구축 및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할 예정이다며, 분야별·계층별 체계적인 지역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및 미래지향적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육성을 할 것이다.

주요핵심사업으로 외국어 마을 조성 및 국제화 교육 지원사업, 충남 인적자원 개발업무 활성화 및 교육협력관 운영, 1시군 1명분학교 육성 및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 자녀의 외국어 능력 및 학업 성취도를 함양하며 산학협력 현장위주의 교육 강화로 대학졸업자 취업률을 제고하며 유능한 인적자원 활용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U-충남 건설을 위해 인구밀도(223.1/km)가 낮고 농어가 인구(24%) 및 노인인구(13.3%)가 많아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애로가 있다. 또한 도민들의 정보화 역량제를 위해 01년부터 정보화 교육(351천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화 수준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도민의 정보편익과 농어촌의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충남이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발굴 추진하며, 도민이 IT문화를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도시와 농어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해서 '살기좋은 U-충남'을 건설하고자 한다. 주요핵심사업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등 30만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07년까지 50가구 미만 소외지역까지 초고속망 구축을 완료하고 마을 단위에 홈페이지와 PC설치 등 도민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모든 마을에서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07년까지 도내 전 마을에 인터넷 초고속망 100% 이용과 08년까지 3,500개 마을에 홈페이지 개설 및 PC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보취약계층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중심의 신경영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도는 세원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며, 도·시군간 사업구분의 모호 등으로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도정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며 도사업과 시·군 사업의 조정으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도정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것이다.

주요핵심사업을 살펴보면, 충남 개발공사를 설립·운영하여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가 우선 공사를 설립하고 시·군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도정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성과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기반을 강화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집행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확충으로 현안사업 해결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성과관리 위주의 행정체제구축에 따른 고비용·비능률 제거로 역동적인 도정수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 본자료는 충청남도 이완구 도지사 취임사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충남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제안

연구자 : 정책연구실 황창연 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

최근 급속하게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 여성의 취업증가, 핵가족 중심의 가족보호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해오던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그동안 노인보호를 전담해오던 가족의 부담을 덜고 노인들에 대한 부양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서비스 공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내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일반현황 및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주요내용과 범위는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수요증가 배경 및 수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았고

둘째, 통계청 자료를 중심으로 충남 노인의 생활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충남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일반현황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관련 통계분석, 2003 전국 노인복지시설 평가자료, 노인복지시설 대표 및 실무자와의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2. 충남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일반 현황

◎ 노인주거복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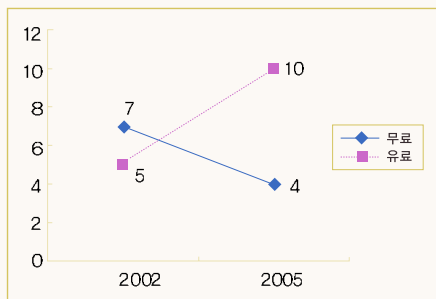
2005년 1월 현재 충남의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은 14개소로 무료시설 4개소, 유료시설이 10개소이다. 전체 수용인원은 295명으로(여성노인이 약 64%) 입소율은 62.8%이고, 전국 평균 입소율 74.0%보다 10%이상 낮다. 유료시설인 경우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무료인 경우 전국 평균보다 20%정도 입소율이 낮아 이와같은 원인이 되는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과 운영개선이 요구된다.

〈표 1〉 충남과 전국 노인주거 복지시설 현황 비교(200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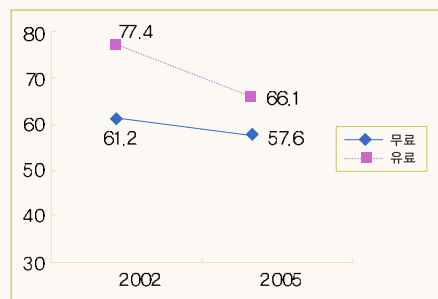
	무료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전체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개소수	4	78	10	41	14	87
정원	184	4,972	286	2,853	470	7,825
현원	106	3,835	189	1,959	295	5,794
입소율	57.6	77.1	66.1	68.7	62.8	74.0

자료 : 보건복지부,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한편 2002년과 비교해본다면 무료시설은 3개소가 줄고, 유료시설은 5개소가 증가했는데 입소율은 무료시설 57.6%, 유료시설 66.1%로 특히 무료양로시설은 요양시설로의 기능전환을 통해 그 숫자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율이 낮아졌다. 반면 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시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실제 이용자수는



〈그림 1〉충남노인주거복지시설 수 변화



〈그림 2〉충남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율 변화

증가했지만 입소율을 비교해보면 2002년도에 비해 10%이상 떨어져, 유료양로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시설증가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그림 2>참조)

◎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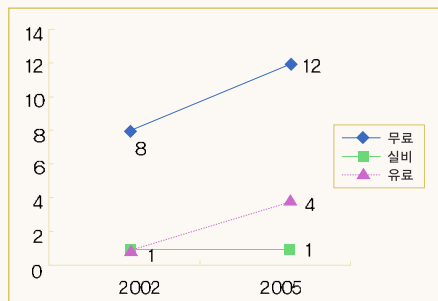
2005년 1월 현재 노인병원을 제외한 충남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무료요양원 9개소, 무료전문요양원 3개소, 실비요양원 1개소, 유료요양원 4개소 총 17개소에 748명이(여성노인이 약 78.2%) 있으며 전체 입소율은 76.6%로 전국 평균 입소율 80.3%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무료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시설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입소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 충남과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 비교(200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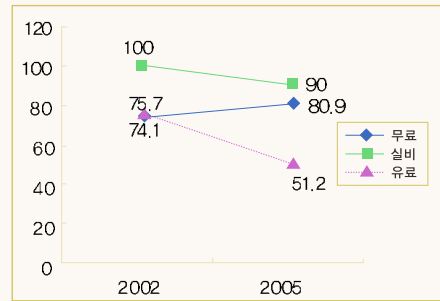
	무료요양시설		실비요양		무료 전문요양		유료요양시설		전체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개소수	9	131	1	42	3	108	4	41	17	322
정원	540	9,384	80	2,310	189	8,539	168	985	977*	21,218
현원	407	7,880	72	1,498	183	7,027	86	640	748	17,045
입소율	75.4	84.0	90.0	64.8	96.8	82.3	51.2	65.0	76.6	80.3

※ 주 : 여기에는 노인병원(90명)과 신축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 550명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 보건복지부(2005).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

한편 2002년도와 비교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는 70% 증가하였으며 주거복지시설의 증가율과 비교한다면 약 4배 정도 더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입소율을 살펴보면



<그림 8>충남노인의료복지시설 수 변화



<그림 9>충남노인의료복지시설 총원율 변화

무료시설만 입소율이 증가했고, 실비요양원이나 유료요양원은 오히려 입소율이 떨어져 시설종류에 따른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3>, <그림 4>참조)

3. 충남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운영실태 분석

충남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해서는 2003년 전국 노인복지시설평가에 참여했던 충남지역의 9개 노인복지시설(무료양로시설 4개소, 무료요양시설 4개소, 실비요양시설 1개소)의 평가 원자료를 재분석하여 전국 평가결과와 비교하였다.

◎ 평가 결과 개요

충남지역의 2003년 노인복지시설 평가대상 기관(9개 시설)의 전체 평가점수는 72.09로 전국 평균 78.59에 비해 약 6점 정도가 낮았다.

시설종별로 살펴보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곳은 요양원이었고(77.21점), 다음은 양로원(75.04점), 실비 요양원(64.0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84.43점), 다음은 서비스의 질 영역(74.77점),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66.75점), 지역사회관계 영역(56.8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점수와 비교해보면 충남은 시설종별로는 실비요양원의 점수 격차가 가장 높았으며, 영역별로는 지역사회관계부분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한편 이와같은 평가결과를 앞서 살펴 본 충남의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입소율과 연관지어 생각해본다면 실비시설을 제외하고 입소율과 시설의 질적 서비스 평가점수는 비교적 일치하는 편이다. 실비시설의 경우 오히려 시설평가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율이 가장 높다는 상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내 실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3〉 영역별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평가결과

영역	하위영역	양로원		요양원		실비요양원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A. 시설 및 환경	시설접근성(1)	100.0	93.50	100.0	93.25	100.0	92.25
	외부환경(1)	87.5	92.75	87.5	95.50	100.0	90.50
	내부환경(6)	76.04	83.71	83.3	90.50	62.5	85.58
	시설설비(7)	85.71	89.39	89.29	91.25	85.71	86.82
	위생관리(1)	93.75	96.50	93.75	96.25	100.0	94.25
	안전관리(3)	97.92	93.67	95.83	95.33	91.67	92.33
	A영역전체(19항목)	85.85	83.79	89.14	91.49	81.58	88.16
B.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	운영일반(8)	65.63	71.63	64.06	72.97	56.25	69.94
	인사관리(4)	76.56	79.94	75.0	80.19	50.0	76.44
	직원후생(2)	50.0	67.25	68.75	68.38	62.5	68.25
	재무관리(4)	73.44	74.38	71.88	69.81	56.25	60.56
	정보관리(1)	100.0	72.50	93.75	73.75	100.0	75.00
	직원만족도(6)	75	82.08	75.0	78.08	58.33	77.63
	25항목	71.0	74.01	71.25	72.85	58.0	70.85
C. 서비스 의 질 영역	사정(3)	58.33	72.83	62.5	78.33	33.33	71.17
	기본생활(8)	77.34	89.34	85.94	88.97	78.13	82.97
	보건의료(5)	88.75	87.70	90.63	88.29	80.0	83.10
	재활(4)	64.06	77.38	65.0	81.40	35	48.85
	외상환자 및 치매(3)	88.8	85.88	81.25	89.38	62.5	82.06
	사회서비스(4)	79.69	82.06	81.25	84.31	68.75	78.38
	호스피스 및 장례(3)	66.67	82.17	81.25	84.92	66.67	72.42
	권리(8)	78.13	84.08	77.34	83.91	66.67	81.61
	38항목	76.42	79.23	79.42	84.20	64.02	77.39
D. 지역 사회 관계 영역	개방성(3)	68.75	79.92	60.42	81.00	33.33	67.33
	지역기관과의관계(2)	78.13	80.88	78.13	83.00	62.5	68.25
	자원봉사(3)	50.0	72.81	68.75	71.75	58.33	66.81
	홍보(3)	52.28	64.08	45.83	65.33	41.67	55.17
	11항목	60.80	73.77	61.93	74.33	47.73	64.27
총계		75.04	78.10*	77.21	81.48	64.06	76.19

4. 정책제언

1) 충남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요예측에 따른 공급 확충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충남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일차적인 과제는 필요한 시설의 수요예측과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공급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5년 현재 건축중인 시설까지 포함하면 충남의 유·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 수는 총 33개소, 정원규모 2,067명으로 2005년 요양보호대상노인의 39%정도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적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까지 입소를 원하는 모든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무료(실비포함)시설당 평균 구성비(무료: 66%, 유료: 34%)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무료(실비포함)시설수는 66개소로 전체 수요의 66%를 차지한다. 따라서 시설 충출을 100%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료(실비)공공시설의 적정비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유료시설 확충지원방안이 필요하다.

2)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확충

◎ 입소율이 높은 전문요양원과 실비 의료시설의 확충

입소율은 시설의 수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는바, 현재로서는 무료전문요양원, 실비요양원, 무료요양원, 유료 양로원, 무료양로원, 유료요양원의 순으로 정원 충원율이 높는데, 이는 현재 충남지역의 수요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무료 전문요양원과 실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시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보조비율의 상향조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유료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도모

충남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유료 양로원이 100%, 유료 요양원은 300% 증가하는 등 유료 노인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입소율은 각각 66.1%, 51.2%에 머무르고 있다.

〈표 4〉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비한 의료복지시설확충 규모 추계

구 분		2005년 ²⁾	2008년	비고 (2005 신축중인 시설내역)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261,433	295,522	
입소대상자 ¹⁾		5,228	5,910	
무료·실비 시설	무 료 요 양	시설수	13	4
		수용인원	730	190
	실 비 요 양	시설수	3	2
		수용인원	160	80
	무 료 전 문	시설수	6	3
		수용인원	369	180
실 비 전 문	시설수	1	1	
	수용인원	100	100	
총 계		시설수 23 수용인원 1,359	66 ³⁾ [38 ⁴⁾ 3900 ³⁾	10 550
유료 시설	민간요양시설	시설수	4	
		수용인원	168	
	노 인 병 원	시설수	6	5
		수용인원	540	450
총 계		시설수 10 수용인원 708	[28 ⁴⁾ [2010 ³⁾	5 450
시설충족율(%)		무료(실비)시설	26	66
		전체시설	39	100

- 1)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 출현율로 전체노인인구의 2%
- 2) 2005년 시설자료는 현재 신축중인 시설까지 포함한 시설 수 및 정원규모임
- 3) 2008년 100% 시설 수용 할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필요 시설수 및 수용인원 이때 시설수 및 무료 시설과 유료 시설의 수용 비는 2005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무료 시설 당 평균 수용인원: 1359/23= 59명
 - 유료 시설당 평균 수용인원: 708/10=71명
 - 무료시설 수용인원비 : (1359/2067)×100=66%
 - 유료시설 수용인원비 : (708/2067)×100=34%
- 4) 충남도의 향후 시설확충 계획 시설수 15개소를 포함한 총 확보 예상 시설 수로, 지금과 같은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28개소 정도를 유료시설에서 충당해야 함

따라서 충원율이 낮은 이들 유료시설을 정부 차원에서 세계 혜택등과 같은 지원을 하여 공공 무료 시설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의 다양화 추구

충남노인들의 생활특성 - 유병율이 높고, 노인단독세대가 많고, 낙후되었지만 자택에서 생활하는 농촌지역거주노인이 많으며,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여전히 보수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 등 - 을 고려할 때 기존의 집단생활형 양로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아파트형으로 설계된 노인복지주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 지역정서에 부합되는 형태로 시범적인 운영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3)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의 질적 서비스 향상 방안

◎ 시설건축시 감독기관에 의한 보다 철저한 시설환경 기준 준수

특히 외상상태의 노인들이 거처하는 전문요양원의 경우 채광과 통풍, 등과 같은 시설환경 부분은 거주노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시설환경부분은 일단 시설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복지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관리기관의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 노인 욕구를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일반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외부나들이와 비교적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노인교육전문가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해서 지역내 시설에 보급하는 방법, 그리고 충남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공동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

◎ 주기적인 시설 평가

현재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충남의 경우에도 개별 시설 평가결과를 보면 그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시설에는 해외연수, 시설감사 면제, 예산지원, 표창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저평가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 관심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지원

현재 충남은 타지역에 비해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 후원회의 구성, 자원봉사 인력의 연결, 학생 실습 등 지역사회와의 교류로 이어지도록 권장하고, 시설차원에서는 자원봉사 보상제도의 도입과, 지역 관할 담당 복지사를 통해 잠재적 이용자들로 하여금 지역내 노인시설을 탐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도모한다.





정책제안

국제결혼에

대한 시대적 의미 고찰 및 정책제언



정책연구실장 김종철

편집자주 : 본 내용은 충남의 기초자치단체 시범 성별영향분석평가(아산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한 것임

1. 국제결혼에 대한 시대적 의미 고찰

한국은 이제 산업사회를 뛰어 넘는 정보화 사회, 선진국 수준의 삶의 수준과 경제력 등을 구비한 사회로 진입하려는 문턱에 서 있다. 한국의 남성이나 여성들은 선진국 수준의 개인으로서의 삶의 질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국가의 출산정책에 부응하려하지 않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개인의 풍요로운 삶에 장애가 된다면 이혼 등도 불사한다.

이는 역으로 개인의 풍요로운 삶에 보탬이 된다면 지금까지 금기시 되어 왔던 사회적 관행이나 개인 행동 방식 등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 초 저출산 현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혼도 급증하고 있고, 단독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유지와 단독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개인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무리하게 수행하지 않겠다는 여성(부분적으로 남성 포함)들의 선언인 셈이고, 이혼의 급증은 여성 개인의 삶의 질이나 자아실현, 자아존중감 등(부분적으로 남성 포함)에 문제가 된다면 이혼이라고 하는 기존의 금기시 되던 사회적 관행에도 기꺼이 맞 부딪쳐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도 개인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편견이나 불편함도 감수하겠다는 개인 의지의 선언이기도 한 셈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규격화, 획일화, 남녀 역할 구분, 통합성, 효율성, 서비스 제공자 중심 등의 패러다임을 뛰어 넘어 다양성, 창의성, 개성의 존중, 조화 와 협력, 효과성, 서비스 수혜 대상 중심 등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큰 힘을 발휘해 왔던 단일민족주의라는 사상은 획일화, 통합화, 규격화 등 산업시대의 이데올로기 강화에는 나름대로 기여해 온 바 가 크다고 인정되지만, 개성이 존중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미래사회의 이데올로기로는 적합하지 못한 측면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는 우리사회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정표 바로 앞 자리에 서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을 기존의 산업사회라는 획일화, 통합화, 규격화, 남성 중심의(혹은 가부장적) 가치관이 라는 틀 속에 가두면서 안정과 효율성만을 추구할 것인지 미래 정보화 사회라는 다양화, 개성화, 변화와 혁신, 양성 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가부장 사회의 탈피 혹은 극복)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틀 속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실천이 절실히 요청 되는 갈림길에 서 있다.

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몇 가지 편견

가. 이주여성의 가족 혹은 시부모의 일부가 갖고 있는 편견

1) 어차피 한국말을 모르니까 무조건 아판치거나 혼내도 괜찮다고 생각함.

- ◆ 어느 시어머니의 경우 나름대로 며느리를 자신의 딸 처럼 생각하며 위해 준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며느리가 한국말을 못 알아 듣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대로 마구 혼 내주고 욕도 해주었다고 함. 물론 지금은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2)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시키려면 며느리 나라의 문화와 습관 언어 등과 철저히 단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 외국인 여성을 맞이한 어느 한 가정에서는 며느리가 단 시간 내에 한국사회와 가정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 나라의 문화, 음식, 사람, 언어 등과의 접촉을 단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다고 함.
- ◆ 이는 한국적인 문화와 풍습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빨리 동화시키려는 전략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이나 자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이는 그녀에게나 자녀에게도 치명적인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이주여성 나라의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산 직후 어린 자녀에게 사랑의 표현이나 의사 표현 그리고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데, 이 때 어린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피드백이나 관심 표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좌절과 불안감을 체험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필리핀 여성의 경우 한국에 오자마자 첫 째 아이를 낳았는데 한국말 표현이 서툴고 그 표현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아이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첫째 아이는 한국말과 영어 모두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함.
 - 반면에 둘째 아이에게는 영어도 자신있게 표현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표현했더니 영어와 한국어 모두를 잘한다고 함.
 - 또 다른 예는 러시아 여성의 경우 남편적인 적극적 협조 하에 자녀에게는 러시아로 말하고 남편은 한국말로 한 결과 아이가 러시아어와 한국어 모두를 잘 알아 듣고 말한다고 함.

- ◆ 이는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어느 나라 말이 됐든) 그리고 인격의 존중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말해주는 것임.

3)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상대방의 식문화를 멸시하는 경향이 있음.

- ◆ 한국에 와 처음에는 어떤 음식은 먹기가 어렵고 안 먹고 싶은 경우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조건 먹으라고 강요했으며, 자국의 음식을 해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음.
 - 그런데 베트남 여성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의 하나가 액젓에 고춧가루나 후추 등을 곁들여서 야채를 짬뽕하는 것인데 허브 음식 같아서 한국 사람의 코에는 화장품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사느냐며 못 먹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함.
- ◆ 그리고 한국 음식이 주로 채소나 나물 중심인데 무조건 김치 등 채소나 나물 중심의 식사를 강요하면 먹기 힘들지만 고기의 경우는 쉽고 맛 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함.
- ◆ 따라서 한국에 와서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1-2년 기간 동안에는 출산 임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4) 돈 두고 사왔다는 식의 발언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

- ◆ 이혼 후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한 남성은 자신이 아는 어느 한 친구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억지로 끌고 가서 합의이혼 시키고 고국으로 돌려 보내고서는 다시 장가를 들은 경우도 있다고 말해 주었음.

나. 한국 사회 혹은 사람들의 일부가 갖고 있는 편견

1)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게 되라도 되듯이 이상한 눈썹리로 쳐다보거나 멸시하는 듯이 말을 함.

- ◆ 슈퍼나 쇼핑 센터에 갈 경우 아줌마들이 “어디서 왔어 / 혹시 베트남에서” 라고 물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왔네, 힘들겠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그런 말을 들으면 이주여성들이 부담스럽고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함.

◆ 아내가 돈을 쓸 경우 다소 씩씩이가 헤프면 그저 당신 나라에서 몇 달치 월급인줄 아느냐며 나도 모르게 편잔을 줄 때가 있음.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스스로 자책하기를 우리 나라도 못 살고 힘들어서 일본의 침입과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잘못된 말이라 여기고 고치려 하고 있었음(베트남 여성의 남편).

2) 길을 대형 가르쳐 투거나 바가지 요금을 씌움

- ◆ 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한테 길을 물으면 '저리 쪽 가면 된다'고 대답해 주기 때문에 고생할 때가 많은데 외국인들의 경우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몰라서 가고 싶은 데를 거의 갈 수 없었다고 함.
- ◆ 남편이랑 택시를 타면 4000원 나오는 거리인데 자신이 혼자서 택시를 타면 빙빙 돌아서 1만원 정도의 택시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백화점 등에서 물건을 살 때도 남편이랑 같이 갈 때와 혼자 갈 때 똑 같은 물건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화가 나기도 한다고 함.(러시아 여성)

3) 피부 색깔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차별함

- ◆ 인도에서 온 마야라는 여성은 말하기를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피부 색깔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매우 아팠지만, 한국에 온 고국 친구들한테 왜 한국 사람들이 피부 색깔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를 듣고 난 후에는 마음이 덜 아프게 되었다고 함.
 -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으니까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견이 생겼을 것이라고 이해한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졌다고 함.
 - 하지만 인도에서 한국으로 국제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의 아이들이 학교

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고 하며, 아이들이 피부가 다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고 함.

- ◆ 마야 자기 자신은 한국 사회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므로 한국 사람들의 편견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자녀 즉 2세들이 그런 편견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된다고 함.
- ◆ 한국인의 피부색깔이 거의 다 비슷한 생활경험이 서로 다른 피부색깔을 가진 사람들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피부 색깔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조건 똑 같아야 한다고 하는 발상은 이러한 피부색깔이나 단일 민족론과 같은 역사적 전통에 기인할 수 있음.

4) 칼라플하고 노푼이 님한 의상에 대한 면견이 있음.

- ◆ 러시아에서는 화려한 색(빨강, 파랑, 노랑) 색깔을 즐겨 입고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부드럽고 은은한 색깔을 좋아하고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가슴팍이 깊이 팬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도 매우 싫어함(우즈베키스탄 출신).
- ◆ 국제결혼 여성들의 개성이 무시되면 그녀들은 무기력해지거나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음. 생기발랄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함. 개성이 존중된다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드리고 함께 하는 방식을 배울 때에만 비로소 가능함.
- ◆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잣대가 지배적인 산업사회에 한국적인 획일적 사고방식이 산업의 발전에 큰 성과를 나오게 했지만 다양성과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미래사회에서는 오히려 우리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 이제 우리는 사람의 피부색깔이나 외모 등이 다른 다양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고의 훈련을 시작하고 이를 보편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은 이러한 우리의 사고방식의 전환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쳐야만 할 것으로 사려됨.

3.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관련 정책제언

▶ 남편/시부모 관련 정책 제언

◆ 필요성 및 배경

- 외국인 여성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이들의 가치관이나 행동방식 여하에 따라 국제결혼 여성의 삶의 조건이 크게 달라 질 수 있음.
- 남편들의 소극적이고 은폐적인 생활 방식은 이주 여성들에게 심한 좌절감을 주며, 2세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침.
- 국제결혼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가장 잘 그리고 편안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음.(요리나 한국말도 남편으로부터 배우면 매우 효과적임)
- 남편한테 요리를 배우는게 제일 좋으나 현실적으로는 시부모한테 배우는 경우가 많음
- 남편이 준비된 만큼 남성 자신뿐 아니라 이주 여성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행복이 많아짐.
- 외국인 여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시부모와의 관계이므로 시부모와의 관계가 원활해지면 국제결혼 가정도 원활해 짐.

◆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식

◎ 국제결혼 면허(자격) 취득 교육과정 운영

- 대 상 : 국제결혼 예정자 혹은 결혼 3개월 이내의 남편
- 내 용 : 국제결혼 마음자세, 변화 마인드, 아내 이해하기, 아내의 한국말 지도법, 가사 지도법 등
- 추진방식 : 이수자에 한하여 혼인신고 허용(국가적 차원)
보육시설 무료 이용/ 정부 지원정책 우선 대상에 포함시킴(자치단체 차원)

◎ 아내를 위한 요리 및 한국말 지도

- 대 상 : 국제결혼 예정자 혹은 결혼 1년 이내의 남편
- 내 용 : 아내를 위한 한국 기초 요리 만들기, 가정 내 우리 우리말 지도 방법 등(필요 시 아내 참여 공동 프로그램으로 운영)

- 추진방식 : 이수자에게 1년치 고기 구입권 제공
이수자는 정부 지원정책 대상에 우선 포함 시킴

◎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정책/사업 안내 책자**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남편, 시부모
- 내 용 :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안내 책자를 각국어로 제작
- 추진방식 : 국제결혼 가정의 남편, 시부모에게 무료 배포(필요시 친지 및 이웃에게도 배포)

◎ **가정살림 품목 이중어 책자 발간**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남편, 시부모
- 내 용 :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나 물건 등을 한국말과 각국 언어로 정리된 책자의 발간
- 추진방식 : 국제결혼 가정의 남편, 시부모에게 무료 배포(필요시 친지 및 이웃에게도 배포)

◎ **국제결혼 가정 방문 상담/지도교육 안내 책자 발간**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남편, 시부모, 이주결혼 여성
- 내 용 :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주의점, 어려울 때의 상담 및 조언 구하는 방법, 관련 자료 및 책자 제공, 국제결혼 초기 문제해결 상담, 자녀의 언어지도 및 인성지도 방법 등
- 추진방식 : 공개적인 모임에 나오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여 책자를 통한 간단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결혼이민자가족 방문 상담 전문요원 양성**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남편, 시부모, 이주결혼 여성, 공무원
- 내 용 :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주의점, 어려울 때의 상담 및 조언 구하는 방법, 관련 자료 및 책자 제공, 국제결혼 초기 문제해결 상담, 자녀의 언어지도 및 인성지도 방법 등
- 추진방식 : 공개적인 모임에 나오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전문요원을 양성함

◎ **남편 모임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남편

- 내 용 :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남성의 역할, 가족관, 자녀지도방법, 상호이해 및 배려 방법, 상호 정보 제공 및 교환, 상호 친목 및 인간관계 형성, 기부장적 문화 극복 방안 등
- 추진방식 : 남편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변화하여 국제결혼 가정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한국사회의 변화 주체가 되도록 권장하고 지원함

◎ 시부모 모임(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시부모
- 내 용 : 국제결혼 가정에서의 시부모의 역할, 외국인 며느리와 함께하는 방법, 며느리 가사 및 요리 지도방법, 외국인 며느리와 함께 살 때의 주의점, 손자녀 지도 방법, 아들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법 등
- 추진방식 : 시부모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변화하여 국제결혼 가정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한국사회의 변화 주체가 되도록 권장하고 지원함

▶ 이주여성 관련 정책 제언

◆ 필요성 및 배경

-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을 담보로 한국 땅으로 이주한 용감하고 모험심 강한 여성들을 위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면 이를 잘 활용할 것으로 여겨짐
- 이주여성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국제결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담보됨
-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 농촌지역사회 등에 새로운 활력 요인을 제공함
 - 출산 및 노동력 제공 등
-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한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기회의 제공
- 한국 사회에 큰 고통과 어려움 없이 적응하며, 영원한 주변부가 아닌 한국사회의 진정한 구성한 더 나아가 변화 주체 세력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식

◎ 평생교육기관의 무료 수강 기회 허용

- 대 상 : 결혼이민자 여성

- 내 용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인력개발원,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교양, 취미, 문화, 직업훈련, 창업, 요리강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추진방식 : 국제결혼 증명 서류가 확인될 경우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도록 함

◎ 이주 여성 상담 전문 Social Worker 육성 및 공무원 특별 채용

- 대 상 : 결혼이민자 여성
- 내 용 : 어느 정도 정착되고 한국어에도 능통한 이주 여성 중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선정하여 국제결혼 가정의 Social Worker 로 육성하여 활용하거나 국제여성 가정을 도와주는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함
- 추진방식 : 관련법 혹은 조례 등을 제정하여 실시(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이주 여성 농업기술 훈련 및 농업 자금 지원

- 대 상 : 결혼이민자 여성(농촌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이주 여성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 사람)
- 내 용 : 농촌지역에 정착할 사람에게는 농업기술에 대한 훈련과 더불어서 농업 자금을 지원함
- 추진방식 : 농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함

◎ 이주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요구 조사 및 훈련 기회 제공

- 대 상 : 자녀 출산(1-2자녀) 과 안정적 한국정착이 가시화되는 이주 여성
- 내 용 : 이주 여성의 이전 경력과 향후 한국에서 갖기 원하는 직업 등을 고려하고, 결혼 이민자 여성의 적성과 기존 직업기술을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 추진방식 : 이주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요구 조사에 기초한 교유훈련 기관 선정 혹은 훈련비 지원

◎ 결혼이민자가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출산비 지원

- 대 상 : 임신출산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여성
- 내 용 :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언제든지 임신 출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출

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추진방식 : 보건 관련 혹은 농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함(필요시 여성 가족부 관련 사업으로도 가능함)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내 혹은 부설 심터 설치/운영

- 대 상 : 가정생활에서 폭력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주여성
- 내 용 : 적응이 어려울 경우 심터에서 일정 기간 취면서 재 적응훈련을 받고, 해당 가족 등을 소환하여 소정의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을 받게 함
- 추진방식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설립 된 곳에 일차적으로 운영권을 주되, 필요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366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난립하지 않도록 지역별 안배가 필요함)

◎ 결혼이민자가족 여성의 건강을 위한 음식(고기) 구매 카드 발급

- 대 상 : 국제결혼으로 한국의 음식문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여성(국내 거주 2-3년 이내 자)
- 내 용 :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음식 적응이 어려운데, 특히 한국의 채식 음식에 대한 적응이 어려우나 고기에는 쉽게 적응하므로 고기를 구입하거나 자국 음식 요리를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줌(분기별 혹은 년별로 일정액을 충전시켜 줌)
- 추진방식 : 외국인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트 혹은 외국인 여성을 위한 슈퍼 등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하용된 것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 시에는 지원비를 증액하도록 함

◎ 지역별 결혼이민자가족 담당 변호사 선임

- 대 상 :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이나 국제결혼 가정
- 내 용 : 국제결혼지원센터 혹은 심터 등에서 상담을 통하여 억울하다고 인정되는 이주 결혼 여성 혹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하여 추천서를 해당지역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면 변호사가 일정액의 수입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변호 활동을 함
- 추진방식 : 무성의하게 변호하는 일이 없도록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함

◎ 국가/지역별 이주여성 동맹 및 자조 모임 지원

- 대 상 : 변화와 혁신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이주여성 및 그 가정
- 내 용 : 국제결혼지원센터 혹은 쉼터 등에서 추천받고 운영에 대한 자문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는 5인 이상 자조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운영비 제공
- 추진방식 : 자조모임의 주된 모임 장소는 센터로 하되, 각 가정 혹은 외부 장소에서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이주여성을 요리교실 운영

- 대 상 : 결혼이민자 여성
- 내 용 : 한국 기초 요리 만들기 요리교실 운영
- 추진방식 : 국가/자치단체(프로그램 개발) - 센터(운영 코디네이터/보급)

◎ 이주여성을 위한 각국어 요리 책자 발간 보급

- 대 상 : 결혼이민자 여성
- 내 용 : 한국 기초 요리 방법에 대한 안내 책자 제작 보급(각국어)
- 추진방식 : 국가/자치단체(프로그램 개발) - 센터(운영 코디네이터/보급)

◎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정책/사업 안내 책자 및 가정살림 품목 이중어 책자 발간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남편, 시부모
- 내 용 :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안내 책자를 각국어로 제작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이나 물건 등을 한국말과 각국 언어로 정리된 책자의 발간
- 추진방식 : 국제결혼 가정의 남편, 시부모에게 무료 배포(필요시 친지 및 이웃에게도 배포)

◎ 방문 한글 교육 및 방문 요리 지도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 여성
- 내 용 : 결혼이민자가족 이주 여성을 위한 방문 한글 교육 및 요리지도 실시
- 추진방식 : 국가/자치단체 - 센터 - 정착한 이주 여성 봉사자

◎ 모듬 한글 교육 및 요리 지도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 여성
- 내 용 : 결혼이민자가족 이주 여성을센터 등에 모여서 한꺼번에 한글 교육 및 요리지도 실시
- 추진방식 : 국가/자치단체 - 센터 - 정착한 이주 여성 봉사자

▶ 자녀/부부/가족관련 정책 제언

◆ 필요성 및 배경

- 국제결혼 가정의 핵심 이슈는 결혼가정 여성에 있기도 하지만, 점차 더 큰 이슈가 될 것은 2세들의 문제임
- 국제결혼 가정의 2세들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을 때 한국 사회는 비로소 양성평등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음
- 국제결혼 가정의 건강해야 농촌지역사회,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 가정의 궁극적인 꿈과 희망은 가정의 행복이며, 이는 부부관계, 시부모관계, 가족관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됨

◆ 사업 내용 및 운영 방식

◎ 다문화 체험학습장 건립 및 운영

- 대 상 :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및 일반 아동, 청소년, 성인 허용
- 내 용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국가에 대한 소개, 그들의 대표적인 음식문화, 놀이문화, 가족관계, 역사/자연, 사람, 이야기, 등에 대한 소개와 체험코스, 그리고 그들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사례 등을 소개함
- 추진방식 : 국가 - 광역자치단체(충남) 주관으로 시행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각 국어 홈페이지 운영

- 대 상 : 결혼이민자가족(한국어 미 숙달자 위주)
- 내 용 : 국제결혼 가정 을 위한 각종 제도, 법률,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각국어로 작

성된 홈페이지 운영

- 추진방식 : 국가(여성가족부) - 센터(혹은 인권단체) 연계 시행

◎ 인종 및 소수 민족 차별 예방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시행

- 대 상 :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생
- 내 용 : 인종 및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에 대한 역사적 사례 및 앞으로 인류가 함께 공존하며 나아갈 지표를 제시함
- 추진방식 :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에는 간단한 관광 워크숍(국제결혼 가정 자녀 - 일반가정 자녀)으로 실시함

◎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확충 및 출입국 관련 업무 지원

- 대 상 : 출입국 관리 대상, 특히 결혼 이민자 중심으로
- 내 용 :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국제결혼자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확충하며, 서류 작성에 어려운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하여 서류 업무를 대행해 주거나 도와주는 전담 요원의 배치(일부 국제결혼 자는 서류 작성능력 자체가 안 되거나 원거리 교통이용이 힘든 경우가 있음)
- 추진방식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장지원 사무요원을 두거나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담 사무요원 혹은 국제결혼 가정 지원 전담 공무원을 두어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함

◎ 가족치료 및 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폭력을 당한 자녀, 여성 그리고 가해자
- 내 용 : 폭력 피해자만 치료하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방식 : 결혼이민자가족 및 일반가정의 폭력에 대한 전문 기관 및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가족 2세 심리/행동 치료 기관 설립 및 치료사 파견

- 대 상 : 소외나 왕따를 당한 국제결혼 가정 2세
- 내 용 : 전문기관에서 별도의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에 1-4주 간 파견하여 현장에서 소외 및 왕따 방지에 대한 지도를 실시함

- 추진방식 : 보건복지부 혹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하여 추진(1인)
여성가족부 자체사업으로 추진(2인)

◎ **대안학교 형태의 외국인 학교 설립의 확대**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2세, 및 외국인 자녀, 일부 한국인 자녀
- 내 용 : 인종차별이 없는 영어 및 기타 언어교육이 가능한 외국인 학교의 설립을 권장하거나 지원함
- 추진방식 : 교육인적자원부, 지자체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1인)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전담 교사제 혹은 방문지도교사제 운영**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 내 용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출생에서부터 보육시설 입교 전까지의 전담 요원, 보육시설 전담 교사, 초등학교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교사가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특별보호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추진방식 : 지도교사에게는 특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영양건강 담당 전문요원(보건복지부 - 보건소)
전담 보육교사(여성가족부)
전담 초중등교사(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청)
방과후 전담 지도교사(여성가족부)

◎ **이주여성 자녀의 보육비 지원**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 내 용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보육비 전액 지원
- 추진방식 : 국가- 광역 - 기초 자치단체 연계로 운영

◎ **결혼이민자가족에서의 자녀의 이중 언어 지도 워크숍 및 지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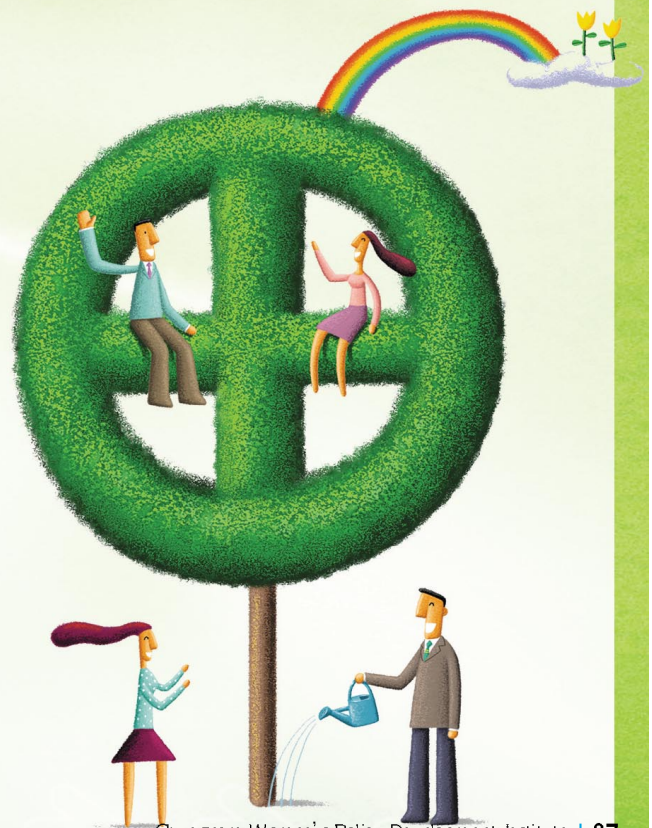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
- 내 용 :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지도 사례 발표 및 지침 개발
- 추진방식 : 국가- 광역 - 기초 자치단체 - 센터 연계로 운영

◎ 국제결혼 가정 부부 캠프 및 가족캠프 운영

- 대 상 : 국제결혼 가정
- 내 용 : 문화 시찰 및 체험 활동을 부부 혹은 가족 단위로 시행되도록 함(특히 부부 단위로 운영할 필요가 큼)
- 추진방식 : 국가 - 광역 - 기초 자치단체 - 센터 연계로 운영

◎ 국제결혼 축제의 날 제정 및 국제결혼을 위한 만남 문화 행사 개최

- 대 상 : 전국민/국제결혼 가정 및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 및 한국인 남성
- 내 용 : 국제결혼 축제일을 제정하여 한국에 이주한 외국인들을 환영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며, 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국제결혼 기념 축하 행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각국의 외국인 여성을 초청하여 만남 행사를 개최함 (러시아 방식, 필리핀 방식, 중국 방식 등)
- 추진방식 : 국가 - 광역/기초자치단체 - 여성가족부 - 센터





지역 문화 축제

은산별신제(3월)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는 예전에 모시가 생산되는 금강하류의 여덟 고을인 저산팔읍중 한 곳으로 큰 장이 서던 곳이다. 과거 이 장터에서는 주민, 그리고 상무사 상인의 후원을 받아서 매년 산신제를 올렸고, 윤년에는 별신제도 함께 지냈다. 별신제를 지낼 때는 대규모 난장이 열려 인근 주민들에게 큰 구경거리가 되었다. 은산별신제에서 모시는 신이 백제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도침대사와 복신장군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전몰 군사에 대한 위령제의 성격도 강한 행사가 되었다. 현재는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다.



계룡산 산신제(4월)

계룡산은 금강변의 명산이다. 고대에는 신성한 다섯 산인 오악의 가운데 하나로 꼽혔으며, 조선 왕조가 시작될 때에는 새로운 도읍지로 선정되기도 했던 곳이다. 이렇게 유서깊은 계룡산의 신원사 한켠 중악에서는 구한



말 고종 황제이후 계룡산신제를 지내왔다. 당시 중악단과 더불어, 묘향산에 상악단, 지리산에 하악단을 두었는데, 지금 지리산에는 터만 전해지고 있다. 이 산신제는 일제시대 이후 신원사에서 행하는 소규모 의식으로 축소되었으나, 최근 조선왕조실록등 고문서를 참고하여 옛모습을 복원하고 있다.

칠갑산장승축제(4월)



청양은 장승에 대한 전설과 유래가 유난히 많은 곳이다. 장승공원은 이러한 특성을 살리고, 쇠퇴하는 장승 문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청양군에서 조성한 공원이다. 매년 4월이면 이곳에서 '칠갑산 장승축제'가 열려 고요하던 칠갑산 자락이 떠들썩해진다. 장승공원에는 전국 최대의 칠갑산 대장군과 칠갑산 여장군이 있고, 축제 행사기간에는 각종 체험행사가 함께 열려 민속 체험학습과 가족 나들이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 근처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는 그윽한 산사 장곡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천구곡과 도립계곡등도 있어서 방문객이 꾸준하게 찾고있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4월)

아산 성웅이순신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충절정신을 되새기고,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196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이다. 매년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 전후하여 3일동안 진행되는데, 탄신일에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다례를 올리고, 소년 이순신 선발대회, 조선시대 무과시험 재연행사, 이순신 마당극 공연, 모형 거북선 만들기 등 관련 행사를 다채롭게 마련하고 있다.



매헌문화제(4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매헌 윤봉길 의사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윤의사가 중국 홍쿠공원 의거날인 매년 4월 29일 전후 3일동안 충의사 참배 등 관련 행사가 벌어진다. 이 곳 윤봉길 의사가 태어난 '뚝바리 마을은 주막이 있었던 곳으로, 보부상들이 활동무대였으며, 이 곳 보부상인 예덕상무사와 관련된 유물 또한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연유로 보부상놀이도 매헌문화제 행사 속에 포함되었다. 행사장이 덕산 온천단지과 바로 이웃하여 있어서 숙식의 어려움이 없으며, 인근에 수덕사·예당저수지·임존성·추사고택 등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지가 있어 함께 답사할 수 있다.

한산모시축제(5월)

한산은 모시의 고향이다. 과거 한산을 중심으로 주변 여러 고을에서 모시가 많이 생산되었던 연유로, 그 특산물인 모시 생산, 유통되던 저산팔읍이라는 문화권이 있었다. 한산 모시는 우리의 의복 문화전통을 이어가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수회관을 건립하고 매년 모시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전시관에는 모시 제작의 전 과정을 볼 수 있으며, 축제에서는 모시패션 쇼와 디자인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얇은뱅이 술'로 유명한 한산의 명물 한산소곡주 등 특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안면도 꽃축제(5월)

2002년 성공적으로 끝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기념하여 열리는 축제이다. 2002년에 꽃박람회가 열렸던 이 장소에서 꽃축제를 개최하여 호응을 얻게 되면서 이 곳 안면도 꽃지는 명실공히 꽃의 고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꽃축제는 꽃박람회보다는 열린 형태의 야외전시 위주로 활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경관을 연출하여 일대 장관을 이룬다.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안면도는 이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휴양지로 부각되었다. 행사장과 이웃한 꽃지해수

육장은 서해안의 3대 낙조 감상지로 꼽히는 명소이며, 자연휴양림의 송림은 조선시대 정부에서 법령으로 벌목을 강력하게 금지하여 보호를 하던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대로 남아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어 도시인들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는 휴식의 장소가 되고 있다.



해미읍성축제(매년봄)

해미읍성은 본래 외적의 침입이 우려되는 이곳 서해안에 병마절도사가 근무할 목적으로 만든 병영이었다. 이 곳 성곽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낙안읍성과 더불어 본 모습을 간직한 읍성으로 꼽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역사체험축제는 이러한 유래를 지닌 해미읍성 안에서 진행되는 축제이다. 2001년도 문화관광부 지역민속축제로 지정될 당시, '관아체험', '옥사체험', '군영체험', '장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특히 성안으로 들어서면 지금의 돈대신 조선시대 엽전을 사용해야 하며, 연인끼리 팔짱을 끼는 등 풍기문란한 행동을 하면 포졸들에게 끌려가 곤장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해마다 행사 내용에 새롭게 변화를 주어 신선한 즐거움을 잃지 않고 있다.



기지사 툄다리기(매년봄)

기지시는 예전에 5일장이 섰던 곳이다. 과거 내포지방의 많은 산물이 이곳에 모였고, 그 북쪽에 있는 한진나루 등을 통하여 서울 등지로 운송되었다. 기지사줄다리기는 이렇게 큰 거점에서 행해지던 시장 민속인데 예전에는 난장이 함께 열렸던 까닭에, 줄다리를 '줄난장'이라고도 했다. 줄의 길이는 200m가 넘고, 직경은 1.8m 정도이다. 줄다리가 열리는 날짜는 원래 윤년이 드는 해 음력 3월



초에 택일하여 정하였고, '물 아래(내륙쪽마을)와 '물 위(바다 쪽)'으로 나뉘어 승부를 겨룬다. 단순한 마을의 놀이가 아니라, 큰 거점 시장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시장 상인들이 후원하는 행사였던 것이다. 현재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되어 있다.

논산딸기축제



전국 최대의 딸기 주산지인 논산에서는 매년 봄의 상큼함을 알리는 딸기축제가 열리고 있다. 논산 딸기는 비옥한 토양, 맑은 물, 풍부한 일조조건에서 생산되고 있어 맛과 향기, 당도와 신선도에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만도 900억여원에 이르는 논산의 효자 농산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논산 딸기가 전해주는 봄소식으로 활기차게 기지개 펴고 기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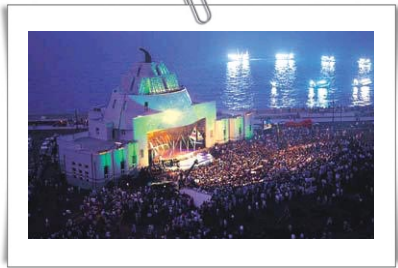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해 보자.

금강민속축제 (7월)

금산은 비단 물길 금강이 수를 놓은 금수강산 그 자체이다. '나비야 나비야 금강에 살자, 물맞이 하세 물맞이 하세, 새생명 물맞이 하세.'의 민요를 테마로 한 금강민속축제는 7월 마지막 주말, 2일동안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에서 펼쳐진다. 1999년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기



획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축제는 여름 피서철을 이용해 가족단위로 즐길수 있는 체험형 축제인데, 수려한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전통민속과 자연생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물떼기 농요, 농바우끄시기와 탑제등 흔히 접하기 어려운 금산지방만의 민속을 체험할 수 있으며, 청정 개울에서는 물고기 탐사여행도 가능하다. 또한 인삼과 인삼제품, 약초 등 금산의 특산품을 구입하고, 인삼어죽, 인삼파전, 다슬기 국밥 등 보양별미를 맛보며 자연속에서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



보령머드축제(7월)

보령시에서는 1996년 대천해수욕장 인근 청정갯벌의 바다 진흙을 가공한 머드로 화장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머드 축제는 이러한 보령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천해수욕장 등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시작한 축제이다. 이 축제는 대천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시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해수욕과 더불어 다양한 머드 체험을 즐길수 있다. 대형 머드탕, 머드 씨름대회, 머드 슬라이딩 등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황성의 섬 외 연도 등 크고 작은섬,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그리고 한여름에도 오싹한 인근 성주산 냉풍욕장과 석탄박물관이 있어서 무더운 여름의 열기도 떨쳐버릴 수 있다.

칠갑문화제(9월)

차령산맥의 준령인 칠갑산은 청양군민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거룩한 산이다. 칠갑산자락을 터전으로 하여 살아오면서 독특한 청양 문화를 이룩하여 왔으며, 청양문화가 칠갑문화로 통칭되는것도 이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조상들의 전통문화가 지금까지도 산신제를 비롯하여 칠갑산 주변마을에 생생하게 전래되고 있다. 칠갑산과 조상들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 1984년도에 칠갑문화제 행사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칠갑문화제의 특징으로는 굿시연, 장승제, 동화제, 탐돌이, 구기자 특산물전 등 청양지방의 독특한 문화행사가 개최된다는 점이다. 특히, 장승제가 타지방에서는 거의 사라져 명맥을 잇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청양에서는 대치면 대치리, 농소리, 이화리 등 칠갑산 기슭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청양굿 또한 문화적 가치가 높아 충청남도 굿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홀수해에는 칠갑문화제, 짝수해에는 군민체육대회가 매년 9월말에 개최된다.



금산인삼축제(9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규모의 행사인 금산 인삼축제는 백제시대 인삼 재배의 기원인 '강처



사 효행설화'가 서려있는 개삼터와 세계 최대의 인삼·약초상이 밀집되어 있는 인삼·약초타운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진약산 산신령이 인삼영약을 처음으로 내려주신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인삼의 품격과 영약으로서 각광받도록 산신령께 기원하는 전통민속 행사로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 금산 인삼축제는 단순한 민속축제로서의 의미를 벗어나 금산의 전통문화와 인삼·약초가 결합한 다양한 체험코너와 독특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이다. 금산농약, 물떼기 농요를 비롯하여 인삼의 신비가 서려있는 진약산 산신제, 개삼제 등 금산만의 귀중한 볼거리와 인삼을 소재로 하는 각종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인삼요리 55선 코너, 건강식품 코너 등 볼만한 행사가 펼쳐진다. 신비와 효행설화를 간직한 금산인삼축제는 찾는 이에게 유익하고 독특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온 가족이 함께 추억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축제이다.

만해제 (10월)

홍성은 충절의 고장이다. 노은리에서 태어난 최영 장군과 성삼문, 갈매 김시 문중의 김복한과 김좌진 장군 등은 모두 한국사에 길이 빛나는 충절의 인물들이다. 3·1운동을 이끌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은 홍성출신으로서, 불교 선각자요 시인으로서 명망 또한 높다. 1995년부터 시작된 만해제는 선생을 기리는 지역축제이다. 추모다례는 선생이 태어난 결성면 성곡리 생가터에서 불교식으로 행해지며, 유품전시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때에 선생의 문학세계를 추모하는 '만해 시인학교'가 열리고, '만해 백일장'과 '만해의 밤' 등 관련 문화에 술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천안 흥타령 축제 (10월)

천안은 서울에서 삼남으로 가는 길목으로 예전 남도의 큰 고을 청주와 공주로 가는 길이 바



로 천안삼거리에서 나뉘어졌다. 사방으로 가는 길손들이 많았던 탓에 주막이 늘어섰고, '천안 삼거리, 흥~'으로 이어지는 흥타령, 그리고 길손이 체할까 염려하여 물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웠다는 능소이가씨의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이 축제는 원래 삼거리문화제라 했으나, 최근 내용을 새롭게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국악이나 민요 등 민속공연 뿐만 아니라, 스포츠 댄스나 발리 댄스 등 현대적인 장르를 포함하면서, 다양한 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종합축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백제문화제 (10월)

1955년 종합역사축제로 부여에서 시작된 한국 3대 문화제이다. 당시 부여에서는 의자왕의 비화, 삼천궁녀의 설화, 삼충신의 충절 등이 구전되어 왔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관련 제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토대로 민간단체에서 삼충신을 모시는 사당 삼충사를 건립하여 '백제대제'라는 이름으로 제례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한편 공주향교에서는 웅진 백제시대의 임금 네분을 추모하는 제례가 진행되어 왔다. 백제문화제는 이 두행사를 합친 것으로, 지금은 매년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번갈아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 1979년 이후 관련 프로그램은 4개분야에 걸쳐 40~70종에 달하며, 공주시 또는 부여시 전역에서 관련행사가 거행된다. 2003년 공주 행사에서는 일반인들이 백제 임금과 왕비, 또는 웅진성 수문병 병사로 근무하고, 백제의상을 입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 문화 상품으로 선정된 바가 있으며, 지금은 명실공히 지역 축제의 특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였다. 축제기간 동안 공주와 부여 곳곳에 산재한 옛 백제의 문화유산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추사문화제(10월)

예산군 신임면 용궁리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이 곳에서 선생의 예술혼을 추모하기 위한 추사문화제가 매년 10월에 열린다. 문화제는 추모제와 서예 백일장, 추사 서화 영인작품의 전시 및 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재전시회, 가족 인형극, 영상음악회 등도 마련되어 있다. 추사문화제의 또 다른 매력은 추사와 그 선대의



유적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고즈넉한 고택은 영조의 둘째딸인 화순옹주와 결혼한 추사의 증조부 월성위가 살았던 가옥으로 고택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두 사람의 묘가 합장되어 있다. 묘 앞에 있는 홍살문은 조선 왕실의 유일한 열녀인 화순옹주의 정절을 기려 정조 임금이 내린 것이다. 옹주 내외의 묘역을 관리하였던 화암사의 자태 또한 고택만큼이나 빼어나다. 추사또한 이곳 선영에 안장되어 있다. 추사와 그 선대의 유적을 둘러보는 데에 하루 해는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강경젓갈축제(10월)

강경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근의 산물이 집산되어 성시를 이루던 대표적인 교역장소이다. 이 곳은 우리네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젓갈 산지로 유명하다. 젓갈은 강경, 강경은 젓갈로 불리워 왔다. 매년 10월 중순 경부터 강경포구, 젓갈시장과 옥녀봉 등 강경을 전역에서 '강경 젓갈축제'가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함께 다채롭게 펼쳐진다. 불거리·먹을

거리·살거리가 풍성한 향토문화축제인 강경젓갈축제는 국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면서 지역 잔치의 수준을 벗어나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도 수백 명이 찾는 국제적인 문화·관광·산업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강경포구 및 주무대에서 열리는 한마당 잔치에는 강경포구 용왕제를 비롯하여 새우젓 높이쌓기, 젓갈통 지고 달리기, 젓갈 함치박 이고 달리기, 선비복장을 하고 다양한 젓갈을 맛볼 수 있는 황산골 선비밥상과 같이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장철을 앞두고 열리는 축제라서 관광객들이 축제행사장에서 김장용 젓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데, 저렴한 가격과 후덕한 덩이 풍성한 가을 충청도의 인심에 미소짓게 한다.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개원 첫 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자리매김

“미니 자동차도 직접 타보고, 동물들도 보고 인성학습원에 오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갖가지 재료들로 자신의 얼굴도 만들어 보고 색다른 체험을 하니 오늘 하루가 너무나 신이 나서 또다시 오고 싶다”는 아쉬움을 뒤로 한채 떠난다고들 말했다

국립공원 계룡산 기슭에 자리잡은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최초로 금년 2. 13 개원하여 10여개월 남짓 운영한 결과, 126개시설 7천여명의 어린이들이 다녀가는 등 수요자들과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성공적으로 도약의 가능성이 매우 큰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곳을 찾는 충남의 어린이들은 도심이나 유명 렌드에 가거나 타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체험들로 하루를 만끽하고들 돌아가는 곳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일 또는 1박2일을 병행하여 자연체험, 문화예술, 특별체험, 상시체험활동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참여 어린이의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 및 간식비로만 1일코스 5,000원, 1박2일코스 20,000원을 받는다.

인성학습원 관계자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인성체험학습을 통하여 자연사랑 정신 및 우리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우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심어주어 미래의 인재로 자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내년도에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용신청은 상시 전화(042-825-1541.2) 또는 인터넷(www.ihumanedu.or.kr)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가 있다고 한다.



논단

5. 31 지방선거를 통해본 여성정치참여의 성과와 전망

이숙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80년대 초에 창립한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고 법,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은 의사결정구조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에 그 성과가 달려있다는 사실과,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 동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접적 방법임을 깨닫게 된다. 특히 남성중심의 부패정치를 일소하고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있다는데 착안하여,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와 지방자치의 시행을 계기로 여성계의 적극적인 운동 과제로 '여성정치세력화'를 실천과제로 부각시켰다. 실제로 제도 개선을 통한 16대, 17대 여성국회의원의 비율확대는 여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여성 정치참여 현실은 아직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06년 5.31 지방선거결과만 보더라도 1,411명의 여성후보자 중 527명이 당선되어 13.7%의 당선(비례포함)으로 2002년의 3.2%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에 기초 선출직만을 놓고 보면 2002년 2.2%에서 4.4%로 확대되는데 불과하다(오유석, 2006). 한편 조옥라(2006)는 지역에서 조직 활동을 해 온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이유는 여성단체들

이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고 지역 내에서 중요한 토대를 만들고 있지 못하기 때 문임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 가 더욱 저조할 수도 있으며 성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과제를 거스르는 결과로 나타날 수 도 있다. 한편, 여성들이 여성단체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 문제에 민감하게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이미 반상회, 부녀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발휘해 왔음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보수 여성단체 회원들은 정치인의 동원 대상이 되기 도 하고 선거꾼으로 활동하며 여성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도 하였다. 그 영향으로 최근의 정치계도 과거의 선거에 이용되던 단체의 회장을 공천 후보로 선호하며 '그들이 표를 몰고 다 날거라' 착각하는 태도를 보여 여성계에 이야깃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여 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 내의 잠재적 여성인력 을 발굴하고 그들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그들이 여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회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이 각 지역에서 곳곳하게 활동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충북여성연 또한 2002년 창립 이후 이번 5.31지방선거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펼쳤다. 여성연뿐만아니라 충북지역 여성계는 여성정치인을 한명이라도 더 만들어 내어 5.31선 거를 풀뿌리민주정치와 여성정치세력화 기반을 확고히 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오로 지 중앙정치를 평가하는 심판대로 변질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정치세력화' 를 위한 여성계의 활동이 10년이 되었는데 2006년 5.31 지방선거는 왜 저 조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을 지적하게 된다.

첫째, 사회의 의식부족이 그 원인으로 정당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아직도 정치영역은 남 성들만의 영역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공천과 당선 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둘째, 개정된 선거법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의 심판대로 작용하였 으며 여성들을 들러리 서게 했다는 평가에서 피할 수 없게 한다.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총선출마예정자들의 영향력과 여성들의 정당 내 취약한 입지로 인해 여성공천에 영향 을 미치지 못했으며, 총선 시 이용가능성에 그 기준을 두고 공천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과거에 중앙당이 갖고 있던 공천권을 각 도당으로 이양함으로써 정치계에서부터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끊이지 않는 공천 잡음 속에 주로 여성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또한 공천 신청자간에 형평성을 빌미로 여성후보들에게 남성과 대등한 경선 및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정당들이 여성계와의 할당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스스로의 공신력을 실추하였다.

셋째, 정당내의 비민주화로 정당내의 의사결정구조에 남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남성에게 비해 재정과 조직에 열악하고 정당문화에 익숙치 못한 여성들이 정당의 공천이란 엄청난 벽을 넘기엔 현실적으로 역부이었다.

넷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지역구에 출마하기보다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를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공적영역에 진입하기위해 필수과정인 남성들과의 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집안문제나, 동네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한 여성들조차 공적으로 그 일을 확대 하는데는 거부감을 나타는데, 이는 여성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정치의 영역은 남성만의 영역이라는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하기 어렵고, 앞장서는 여성을 드센 여성으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본다.

뿐만아니라, 주민들은 내가 뽑은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투표하는 경우가 드물다. 반면에 그들은 정치인들이 주민의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가정의 생활비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어떻게 쓰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정치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더욱더 여성을 의회로 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작은 모임을 할 때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따져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는 일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21c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강조되는 방법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이다.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만의 과제가 아닌 지역의 과제이며 국가의 과제이다. 이 시점에서 국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정치영역은 남성들만의 영역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날 때 참된 주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를 찾을수 있음을 주민들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둘째, 5.31선거는 제도의 개선이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므로 철저한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당내 민주화와 당내 문화개선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여성할당제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넷째, 여성계의 적극적 대응활동으로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방자치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 정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 남성정치인과의 경쟁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자질과 능력의 검증을 통해 기준에 합당한 여성이라면 정당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며, 자신이 나서서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가는 모델이 되길 거부하지 않아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통한 풀뿌리민주정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의 개정과 여성계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므로 국가, 지자체, 사회의 노력과 함께 주민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요건임을 강조하고 싶다.



『새로마지플랜 2010』의 과제와 노인복지의 전망

우하영 (유성구노인복지관 사무국장)



을 해부터 5년간(2006~2010) 3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 플랜 2010'은 무슨 뜻일까?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복한 출산과 노후를 새롭게 맞이하자'는 뜻으로 부르기 쉽게 고쳐서 내놓은 브랜드명이다.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을 상징한다.

2001년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이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지난해에는 1.08까지 하락했다.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시한폭탄이 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이라는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현재 수립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06~2010)"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제라도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기본계획안은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분야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글은 정부대응책의 근본적 문제점을 살펴보기 이전에 심의확정된 새로마지플랜2010 주요과제의 이해와 요약을 통해 노인복지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7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새로마지플랜2010』 최종안이 심의 확정되었다. 정부가 최종 확정된 『새로마지플랜2010』에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양육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자녀 양육 가정의 공통적 어려움인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사회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는 정책여건을 감안하여 제도의 도입 시기, 방안, 자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나 이용 아동수는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3%에 불과하여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이 도시지역에 비해 저조하며 영아보육 문제 등 추가수요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영아보육 등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지자체의 복합 공공시설 신축 및 학교 BTL 사업 추진 시,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셋째, 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신혼부부들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 지연 및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며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가점을 제공하는 등의 주택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한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 새로마지플랜 2010 두요 과제

새로마지플랜 2010은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를 이루기 위해 출산과 양육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계층까지 확대하고, 아동수당제 도입도 검토한다. 만 5세 아동과 장애아동, 농어촌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교육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영유아보육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확대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장에서도 출산과 육아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여성의 직장문제를 덜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를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며, 대체인력도 쉽게 쓸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 육아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배우자도 출산간호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바탕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고, 경로 연금 확대를 통해 다층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자용 국민임대 주택 조성하며,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시장형·복지형 등 안정적인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해 주거, 여가,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고령자를 위한 생활기반을 확충한다.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양성평등 고용 실태를 조사, 발표하는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를 확대하고,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임금체계 개편 등 실질적인 정년 연장 요건을 조성하며, 정년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성과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직업 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 노인복지의 전망

노인 대책은 크게 △의료서비스 △소득 확충 △일자리 제공 등 3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2일 제10회 노인의 날을 맞아 임금 피크제 실시기업에 보전수당을 주고 정년 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향후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재확인한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을 올해보다 50.2% 증액된 6,542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사적연금제도를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더라도 계속 직장을 다니는 등 수급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1년당 6%씩 급여액을 증액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와 중풍 등 장기간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2008년까지 노인요양시설 456개소 등 총 1400개의 요양시설이 갖춰진다. 공립 치매요양병원의 경우 지난해 6,027개 병상을 2010년까지 8,577개로 확충할 예정이다.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60세 이상까지 고용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와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일자리도 늘릴 예정이다. 내년에 11만개의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2010년까지 매년 3만개씩 확대해 38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자 가구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실제로 경기도 가평 등지에 855호의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 2009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 보급도 확대된다.

개혁안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및 법제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요구에 대한 당면해결과제들이 쌓여 있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몫이 아닌 나의 미래를 위한 현재의 관심과 노력이 우선 필요하며 변화해 가는 제도와 정책들 사이에서 이해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회복지 실천의지가 머리로부터가 아닌 가슴으로 표현되어지기를 바란다.

참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 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

목 표

2011-20: 출산을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2006-1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정책추진체계의
효과성 제고

추진과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일-가정 양립가능 사회시스템 구축
-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건강·의료보장체계 구축
- 노인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여성·고령 인력 활용
-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회
요인**

- 청년층의 평균 기대자녀수가 인구대체수준(2.1명)에서 유지
-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욕구 증대
- 양성평등 가치관 확산

**위기
요인**

- 가족의 육아 및 노인부양기능 약화
-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미흡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기반 약화
- 사회적 부양부담 증가

[참고 2]

▶ 기본계획 참여부처(18개 부·처·청·위원회)

참여부처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보건복지부	기획총괄팀	정경실 서기관	2110-6436
	저출산대책팀	서지원 사무관	2110-6447
	노후생활팀	임은정 사무관	2110-6451
	인력경제팀	김현숙 사무관	2110-6457
	고령친화산업팀	성혜영 사무관	2110-6464
교육인적자원부	저출산대책팀	이만희 팀장	2100-6185
여성가족부	가족정책팀	최봉근 사무관	2100-6783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	장보현 사무관	2110-2263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	김기용 사무관	2110-8579
문화관광부	기획총괄담당관	이교택 사무관	3704-9213
노동부	여성고용팀	손필훈 사무관	502-5441
농림부	농촌사회과	김낙신 사무관	500-2086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	박성준 사무관	2110-5123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배상업 사무관	503-7097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	정명량 사무관	2100-3866
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	윤인대 서기관	3480-7857
과학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	한형주 사무관	2110-3791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	홍사찬 사무관	750-1273
국방부	연금담당관실	선길수 사무관	748-6661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허순무 주임	313-0456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하정수 사무관	751-1197
청소년위원회	정책총괄팀	우경미 사무관	2100-8559



서산 시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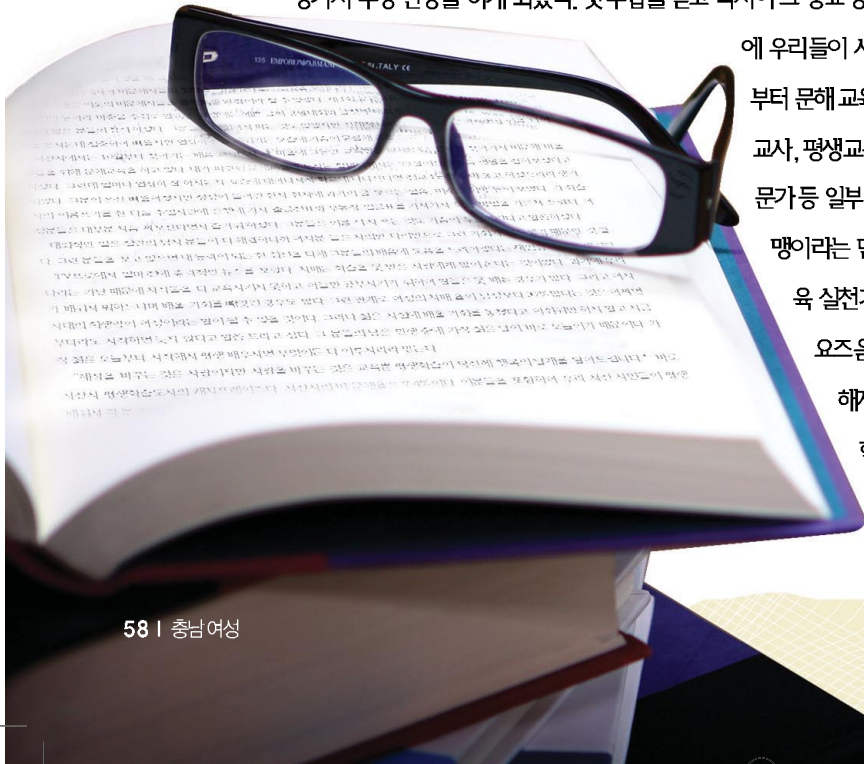
평생 배운다.....

서산시는 몇 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지난 7월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

평생학습도시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구)법원 자리를 리모델링 하여 산뜻한 건물에 평생학습 센터가 들어섰다. 집과 가까운 거리라서 부담 없이 시간내서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서산 시보에 난 날짜에 맞게 접수하러 센터를 찾아가게 되었다. 문해교육, 야생화, 서산학, 영어, 한자, 문화 해설사, 한글반 등 시민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다. 꽃을 좋아해서 야생화도 배우고 싶고 유적지를 멋지게 소개하는 문화해설사 교육도 받고 싶었다. 서산 시민이면서도 서산에 대해서 서산은 아련 것이 자랑스럽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던 관계로 서산의 역사, 지리, 종교, 문화, 인물 등을 다루는 서산학도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곳에 나란히 적혀있던 문해교육 전문가 과정은 생소한 단어라서 관심도 없었다. 담당하시는 분이 문해 교육 전문가 과정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으니 신청하라고 권하셨다. 처음 듣는 문해라는 단어에 호기심이 조금 생겨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다. 첫 수업을 받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알고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았다. 문해는 평소

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문맹의 반대 개념이며 1989년 9월 이후부터 문해 교육이란 낱말이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그동안 한글교사, 평생교육이나 복지관 등의 기관장, 한글 봉사자, 교육전문가 등 일부만이 이해하고 사용하였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문맹이라는 단어는 비문해 단어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문해교육 실천기와 평생교육 전문 학자들의 모임에서 합의하여 요즘은 문맹자를 비문해자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문해자를 문해자로 바꾸어 내는 교육을 문해교육이라 한다. 글로 쓰인 모든 정보를 못 읽는다면 그 답답함이 어느 정도일까? 또한 글로 상대방에게 전



할 일이 있을 때 글 대신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의사를 표현 했을까?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주위를 둘러보았다면 지금에 서야 비문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앞선다. 문해교육을 받고 제일 큰 수확은 이웃의 비문해자들을 돌아보게 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제 1회 문해교육 추제가 함께 교육을 받은 회원들의 모임인 동아리 마중물 주최로 열렸다. 이 날에는 예쁜 글씨 경품대회와 글짓기 대회 등이 있었는데 일흔, 여든이 넘으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 그분들은 대회여서 떠는 것도 있겠지만 신체적 나이가 드셔서 손을 떨시면서 이름, 나이 등을 쓰는데 집중하여 빼돌지만 열심히 칸을 매워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움을 느꼈다.

서산시에서는 10월부터 찾아가는 배움 교사로서 각 마을에 그동안 교육받은 문해 전문 강사가 찾아가서 비문해마을 분들을 위해 문해교육을 하고 있다. 내가 파견된 문해교실에 오시는 할머니께서는 79살이신데 처음 연필을 잡아보셨다고 하셨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잘 하시는지 요즘에 태어나셔서 학교에 다니신다면 전교 1등은 맡아 놓고 하셨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분이 쓰신 빼돌아졌지만 정성이 들어간 한자 한자에 과거의 글 모르는 설움, 미래의 희망 등이 보였다. 각 학습자의 이름쓰기를 한 다음 수업시간에 은행에 가서 출금전표와 무통장 입금표를 가져가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 여성분들은 대부분 처음 써보신다면서 즐거워 하셨다. 그분들은 이름 석자 쓰는 것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씀하셨다.

대외적인 일은 집안의 남자 분들이 다 해결하니까 여자분들은 자의반타의반으로 그런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내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 그분들의 배움에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절로 생긴다.

TV프로에서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다. 치매는 학습을 못 받은 사람에게 많이 온다는 것이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가난 때문에 자식들을 다 교육시키지 못하고 이틀만 공부시키기 위하여 딸들은 못 배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자가 배워서 뭐하느냐며 배울 기회를 빼앗긴 경우도 많다. 그런 관계로 여성의 치매율이 남성보다 30% 많다는 것은 어쩌면 시대의 희생양이 여성이라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배울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그분들의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다. 가장 젊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평생 배우시면 무엇이든 다 이루시리라 믿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뿐 평생학습이 당신께 행복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바로 서산시 평생학습도시의 캐치프레이즈다. 서산시의 비문해율은 7.4%이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서산 시민들이 평생 배워서 각 분야의 문해자가 되어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서산/김인숙 ins503@hanmail.net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마케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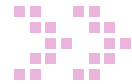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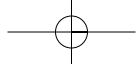
본원 교육실장 이영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연구소로서 충남여성과 도민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이윤이나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여성과 도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마케팅 개념을 적용한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마케팅이란 대개 기업들이 제품판매 증대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실제 마케팅의 의미는 단지 판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코틀러에 의하면 마케팅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표적시장(target markets)에서 자발적인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분석, 기획, 집행, 통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한다. 또한 마케팅의 성패는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을 표적시장의 욕구에 따라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인 가격설정과 홍보 및 유통경로를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원 역시 고객이 되는 충남여성과 도민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이 자발적으로 본원의 프로그램에 시간과 소정의 비용을 들여서 참여할 수 있는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마케팅을 하고 그 도구로서 홍보 및 유통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본원의 교육 프로그램의 마케팅을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선전, 광고, 홍보이다. 지역방송,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지역정보지 등을 활용하고, 본원이 위치한 지역 특성을 살려서 본원과 가까운 기관과 아파트단지의 게시판 및 내부 방송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교육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서 프로그램 이용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고정고객으로 만들고 그들을 입소문을 통해 자체 교육생을 확대해 가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지역의 여성관련기관과 교육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고객, 시설, 프로그램, 사업의 성과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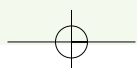
하는 방법이다. 충남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여성관련 교육이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여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제공되기도 한다. 지역의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면 예산이나 시설, 인력 등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 즉 교육생과 교육에 참여한 기관 담당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후속적 관계 유지를 통해 기관을 인지시키는 것이 고객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선전과 홍보 채널

지역의 여성관련 공공기관에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교육 배경, 목적, 세부내용 및 교육 후 교육생들이 얻을 수 있는 수혜 사항 등이 제시된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다. 본원의 홈페이지, 도, 시군청 홈페이지에도 홍보한다. 중앙 및 지방 언론이나 방송국 여성담당 기자에게는 메일로 교육정보를 보내고, 충남 각 지역의 정보지에는 광고를 실는다. 또 본원 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생들의 메일을 통해 교육과정을 안내하며 주제에 따라 후속교육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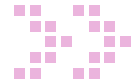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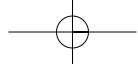
특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약 3km 인근에 육군본부 계룡대가 있다. 군인가족의 전업주부들이 많이 거주한다.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동이 잦은 관계로 군인가족의 주부들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본원에서는 군인가족 주부들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 교육이 있을 때마다 육군본부 정책홍보실에 본원의 교육 정보를 공문으로 보낸다. 정책 홍보실에는 육군 내 온라인 네트워크인 인트라넷에 교육을 안내한다. 인트라넷은 계룡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두 공지가 되기





홍 보 체 널	
여성관련 공공기관 네트워크	-충남도청 여성정책관실
	-시군청 여성복지계
	-충남도청 농림수산물 농정유통과 농정정보인력계
	-시군청 농산과
	-충남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시군 여성관련 기관(여성복지회관)
	-여성관련 상담소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앙 및 지방 언론기관	-여성신문사, 방송국, 신문사
지 역 홍 보 지	-각 충남지역 교차로 등
특 별 사 항	-인근 육군본부 계룡대 인트라넷 -인근 군인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방송

때문에 외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가족 주부가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 이 효과가 매우 커서 공지내용이 한번 올라가면 한 시간에 수천건의 조회가 기록되고 있다. 계룡대 군인가족은 아파트단지에 모여 살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방송으로 교육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이 효과도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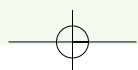


2. 교육프로그램 이용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교육생의 확대 재생산

본원의 교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식비 등 실제 비용은 교육생이 부담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구조와 시설·인력들을 갖추고 있으므로 교육의 질을 비교적 담보할 수 있다. 또 장소가 계룡산 국립공원 내에 있으므로 주변 경관이 좋아 교육생의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생들이 교육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고 지역에 돌아가서 자체 홍보를 재생산하는데 좋은 효과를 준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실에서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시 1년 전에 원내부회의, 자문위원, 도청 관계자과 협의하여 주제를 결정하고 문헌자료와 현장정보를 바탕으로 교육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기존의 관련교육에 참여하였던 교육생들의 요구와 강의 진행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교육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교육 강사와 교육생, 교육생 상호간 자신을 알리고 서로를 알 수 있도록 관계들을 활성화한다. 성인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서로 만나서 친밀해지고 현재 활동분야 및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 팀은 교육기간 내에 교육생 개개인의 상황에 관심을 갖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성의 있게 반응함으로써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휴식 시간에는 음악이나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영상물을 상영한다. 가족을 챙기느라 자신의 아침식사는 거르고 먼 곳에서 오는 여성들을 위해 간단한 토스터와 우유, 주스 등을 제공하고, 셔틀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교육생들은 카풀을 권해 교통비용을 절감하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여성친화적인 교육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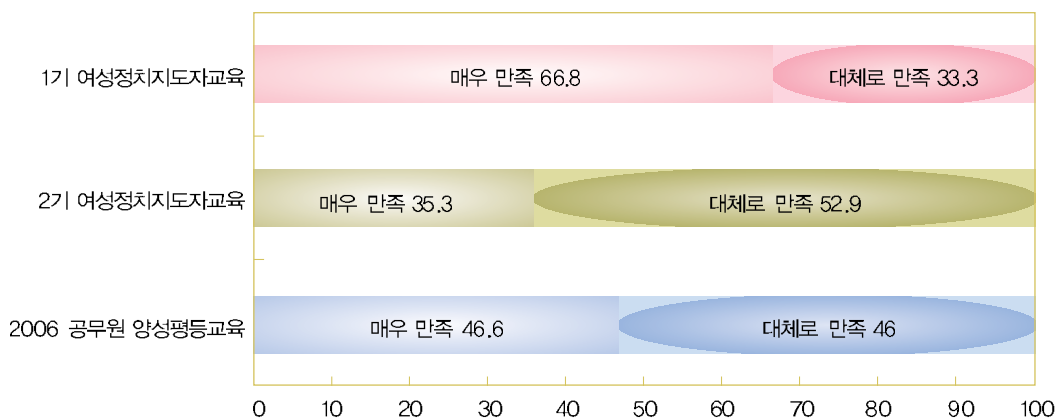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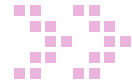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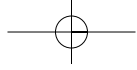
교육이 끝나면 평가 조사표를 받고 이를 분석 정리한 후 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전한다. 교육팀과 교육생, 교육생들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후에도 현장 교육생들의 활동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교육팀과 교육생간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자유게시판에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간 답글을 남겨 1:1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지향한다.

한 예를 들자면 여성 소자본창업과정의 경우 교육강사를 비롯해 교육생의 절반이 넘는 20여 명이 자유게시판에 교육을 통해 얻은 정보 및 전문지식을 통한 의식의 전환과 교육과정의 현실 적합성, 적시성, 지속적인 관심을 비롯하여 교육실 진행팀의 열정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잘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본원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30대 이상 60대 까지의 연령과 인터넷매체에 그리 친숙하지 않은 집단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참여율임을 알 수 있다.

여성참여가 제한되었던 정치분야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5년과 2006년에 두 차례 진행하였던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본원에 교육에 참여한 후 1기에서는 매우 만족이 66.6%, '대

교육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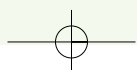


체로 만족'이 33.3%로 100%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2기에서는 '매우 만족'이 35.3%, 대체로 만족이 52.9%로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이 교육생들이 이번 5.31지방선거에 후보자로서, 참모로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였다. 그 중 네 명의 교육생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당선 후 8월에 본원 여성의원 활동지원 워크숍에 참여하여 본원 교육실은 자신을 정치에 나설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고 격려하였던 한 친정과 같은 곳이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이는 본원 교육이 지역 여성이 새로운 생활정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고 선거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교육생들은 본 과정을 이수한 후 더 전문 지식을 보강할 수 있는 후속교육에 참석할 것을 희망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공무원 양성평등과정에 참여하였던 교육생에게 교육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매우 만족하였다가 46.6%, 대체로 만족하였다가 46%, 그 저 그렇다가 7%로 교육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의 여성교육관련 기관 네트워크

여성교육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이용한 마케팅 사례로는 올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농촌 여성리더반 교육을 들 수 있다. 평소에 본원 교육실은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여성관련 담당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다. 올 8월에 농업기술원 여성담당이 전화로 이 사업의 취지를 연락하고 교육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본원 교육실은 이를 받아들여 교육과 관련한 제반 준비를 하였다. 업무는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하지만 모든 진행단계는 공문의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였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





업기술원에서 공문으로 본원에 교육 위탁을 하였다. 공문의 내용에는 농업기술원이 본원에 줄 예산, 교육일정, 요구사항 등이 명시된 것이다.

본원은 농촌여성리더에게 필요한 교육내용, 교육을 진행할 세부 진행자,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두 기관간 수시로 의논하면서 최종 내용을 확정하였다. 개강식, 수료식에 농업기술원 대표가 참여하여 인사말을 하고 교육의 전체 과정은 본원의 교육실에서 진행하였다. 교육생의 성적은 본원에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여 농업기술원에 통보하였다. 농업기술원은 이 성적에 따라 농업해외선진지 견학 과정 교육에 6명을 선발하였다.

4. 결론

충남여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전략을 심분활용해서 정작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5회 유관순상

이인복씨 수상

제5회 유관순상 시상식이 3월 31일 柳 열사의 모교인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려 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에 헌신 해온 이인복(李仁福·68·前숙명여대 교수·왼쪽에서 네번째) 서울 나자렛성가원 원장이 트로피와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유관순햇불상 수상자인 유진주(천안 복자여고2)양 등 여고생 7명은 상패와 상금 100만원 씩을 받았다.



첫 여성 총리 첫 지방 행사

취임 이후 첫 지방 나들이로 4월 28일 아산을 방문한 한명숙(오른쪽) 국무총리가 충무공 탄신 기념 다례행제를 거행하는 현충사 본전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유흥준 문화재청장.





“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심각해요”

카운슬링 페스티벌 개최

충남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정폭력과 성매매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6월 8일 천안 아라리오 광장에서 카운슬링 페스티벌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충남여성긴급전화1366, 도내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충남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35개 전문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였다.

주요행사로는 ▲여성폭력 관련 정보전시 및 사진전시회 ▲가정·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관련 영화상영 ▲신기한 문방구 ▲어린이 성폭력 인형극 ▲해우소 이야기 ▲개별·집단·미술·음악 치료 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부대행사로는 풍물놀이, 스포츠댄스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다.

두 문화·언어 능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충남서부평생학습관, ‘한국어 교실’ ‘방과후 공부방’ 운영
오는 7월 결혼이민자 뿌리내기 ‘온누리안 여름학교’ 추진

“결혼생활 10년 만에 오늘이 제일 기뻐요” 필리핀에서 살다가 10년 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주부 재클린(34)씨의 얼굴엔 요즘 웃음꽃이 피었다. 한국말이 서툴러 대인관계가 서먹했던 재클린이 한국어 강습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중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 4월 18일 서산시 석림동에 위치한 충남서부평생학습관(관장 정상일)에 까무잡잡한 피부와 큰 눈을 가진 여성결혼 이민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곳에서 몽골과 베트남 등 8개국 50여명의 결혼이민자들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필리핀에서 시집온 지 일주일밖에 안된 새댁 파타야(32·당진 거주)씨는 “선생님이 알기 쉽게 한국어를 가르쳐 줘 이 시간이 제일 즐겁다”며 “나도 이젠 당당한 한국인이 되는 것 같아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 방과후 공부방=평생학습관은 ‘한국어 교실’과는 별도로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해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공부방에서 특별활동, 체험학습, 집단 상담 등을 통해 한국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주고 있다. 또한 생활예절과 국어 읽기·말하기·쓰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있다.

방과 후 공부방은 한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아이사(27·결혼 3년차)씨의 경우 매주 월요일마다 능통한 영어실력으로 아이들에게 영어회화를 지도해주는 등 다양한 방과 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정 관장은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에는 ‘온누리안 여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민자 자녀들이 두 문화와 언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시집온 지 6개월 된 에스메랄다(25)씨가 충남서부평생학습관이 운영 중인 ‘한국어 교실’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 수강생들과 답소를 나누고 있다.



알림

도 · 여성소식

news

미래농업과 향기로운 꽃들의 향연

개막 6일째를 맞은 지난 3일 현재 2006 벤처농업박람회(4.28~5.7) 관람객 수가 1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만7천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은 셈이다.

박람회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황수연씨는 “어린이날(5일)과 연휴기간(6~7일)에 관람객들이 집중되면 폐막일(7일)까지 당초 예상했던 20만 명의 관람객 수는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튤립, 장미, 초취류, 유채, 화이트클로버 등 수많은 종류의 꽃과 식물이 6만여평의 야외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지방자치 남성 독무대 '옛말'

충남여성위원의정발전연구회 창립·회장홍표근 도의원



홍표근 회장

여성 지방의원들의 단체인 '충남 여성의원 의정발전연구회'가 8월 21일 도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전체 여성 도의원과 시·군의원 26명 중 21명이 참석, 초대 회장에 홍표근(洪杓根)도의원(농수산경제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칙안을 의결했다.

연구회는 정기적으로 만나 정보를 나누고 다른 단체들과 함께 세미나를 여는 등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을 계획이다.

洪 회장은 “여성의원 수가 늘어나 역할도 그만큼 커졌다”며 “연구회가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규(金文圭) 의장은 축사에서 “연구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성 지방의원들이 자체 연구모임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열린 충남 여성의원 의정발전 연구회 창립총회 모습.

여성 26명·전체의원 12%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의정 단상에 선 여성은 모두 26명(道 4, 시·군 22). 전체 의원 216명 중 점유율 12.0%이다.

도 의원은 38명 중 4명(지역 1, 비례 3)으로 10.5%, 시·군 의원은 178명 중 22명(지역 2, 비례 20)으로 12.4%를 차지한다.

시·군의 경우 충남을 통틀어 전임 의회에 여성은 단 1명(이용희 태안군의원)뿐이었으나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대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도내 16개 시·군의회 중 계룡시와 금산군을 뺀 14개 시·군의회에 여성 의원이 1명 이상 활동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받은 사람은 각자 최초(최고)인 지역구 의원 세 명. 이중 도의회는 홍표근(洪杓根) 의원이 최초의 여성 재선의원이다.

태안군의회는 이용희(李容姬) 의원이 6명 의원 중 득표율 1위 및 최초 여성 재선 의원에 이어 의장까지 됐다. 청양군의회는 조선의김명숙(金明淑) 의원이 11명 의원 중 득표율 1위.



알림

도·여성소식

news

<임원 명단> ▲회장-홍표근(洪杓根·53·도의회·부여) ▲부회장-서경원(徐璟源·58·천안시의회·비례), 이용희(李容姬·58·태안군의장) ▲감사-이선자(李善子·62·도의회·비례), 박정희(朴貞姬·62·도의회·비례) ▲총무-김명숙(金明淑·41·청양군의회)



서경원 부회장



이용희 부회장



이선자 감사



박정희 감사



김명숙 총무

“여성, 당신은 세상의 중심”

제4회 금산여성문화제

제4회 금산여성문화제가 7월 20, 21일 이틀간 금산 다락원 생명의 집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금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된 올해 행사는 ‘여성, 세상의 중심입니다’라는 주제로 춤사랑의 부채춤, 추부초교의 댄스, 생활체육회의 스포츠댄스와 에어로빅, 결혼이민여성들의 퍼포먼스가 열렸다.



세상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힘, 금산여성문화제가 지난 20일 다락원에서 열렸다.

보령, 청소년 문화의 집 각광

지난해 4월 개관된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관장 박찬이)에 지난달까지 약 4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끼의 발산처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창의적인 문화와 예술,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취미교양 프로그램중 '몸치 탈출 다이어트댄스' 장면

여성자율방범대 출범

충남여성자율방범대 발대식이 11월 28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여성방범대는 16개 시·군에서 선발된 250명의 대원들로 출범했으며, 신임 회장에는 장선화(37·보령시 남포면) 씨가 취임했다.





알림

도·여성소식

news

불우이웃에 온정의 손길

- 서산시 동문 2동 조정웅(63·사진)씨 =10년전인 96년부터 98년까지 2년 동안 마을일을 맡아 보면서 받았던 수당 192만원을 불우 이웃에 써 달라며 11월 27일 동사무소에 기탁했다.



복지 예산 점유율 22.4% '최고'

도청소재지건설특별회계 241억 신년

내년 예산 3조5천420억 편성...올해보다 12.7% 증가

충남도는 내년도 살림 규모를 3조5천420억원으로 확정, 11월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3조1천440억원)보다 12.7%(3천980억원)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가 2조5천562원으로 올해 대비 13.8% 증가, 특별회계는 6천238억원으로 올해 대비 20.9% 증가했다.

기금예산은 3천620억원으로 올해 대비 5.4% 줄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3천233억원, 의료보호기금 2천330억원, 도청 소재지 건설 241억원, 안면도 관광지개발 19억원, 금강 종합개발사업 120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71억원 등이다.

기금예산은 여성발전복지 34억원, 문화예술진흥 47억원, 청소년육성 35억원, 농어촌진흥 211억원, 중소기업육성 211억원, 사회복지 44억원, 재난관리 228억원 등으로 짜여졌다.

예산안은 11월 16일 개최하는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복지예산이 경제예산 투월

■ 분야별 투자 사업

사업 분야별로는 건강한 복지공동체 구축에 7천948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체 예산 중 22.4%로, 10대 사업 분야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이는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확충 기조에 발맞춰 대폭 상승한 것이다. 06년 복지 예산은 6천231억원(점유율 19.8%)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6천320억원(점유율 20.1%)에 이어 두 번째 순위였다.

구체적인 사업은 노인 교통수당(28만명) 63억원과 방학 때 아동 급식비 지원 15억원, 가사 간병(看病) 도우미 사업(591명) 74억원 등이 포함됐다.

군민 합동결혼식 거행

연기군 여성자원활동센터

연기군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정준이)는 2006년 11월 9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가정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10쌍의 부부들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김석중 연기부군수 주례로 치러진 이날 결혼식에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하객 등 약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郡에서 원앙이불과 압력밥솥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차렵이불 10채, 박재진 연기경찰서장이 손목시계 10개, 조기호 연기교육청 교육장이 반상기세트 10개, 한국토지공사·행복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1단에서 농협상품권 200만원을 선물했다.





내 고장 홍보 우리가 맡는다

도정신문 명예기자 연찬회

2006 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회장 김경애) 연찬회가 11월 8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충남임해수련원(보령)에서 열렸다.

올해 연찬회에는 이완구(李完九) 지사를 비롯해 도내 16개 시·군 주부명예기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李 지사는 이날 삼성LCD총괄(아산) 황은주 과장을 비롯해 신규 주부명예기자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는 모두 100명으로 늘게 됐다.

축사에서 李 지사는 “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는 충남도와 시·군 간에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도정의 방향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8일에는 풍산 김기학 선생의 ‘풍수와 여성의 생활’ 이, 9일에는 김경은 경향신문 뉴스메이커 기자의 ‘주부명예기자의 역할’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이완구(李完九) 지사가 지난 8일 충남학생 임해수련원에서 열린 2006 도정신문 주부 명예기자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충남 새마을부녀회

충남도 새마을부녀회(회장 방은희)는 12월 7일 금산군 다락원에서 금산군 여성단체회원 및 여성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 도효근 전주교육대학교수는 차세대 여성지도자의 자세와 역할이란 특강을 했다.<사진>



제1회 중년여성 끼 페스티벌

제1회 중년여성 끼 발산 페스티벌이 지난 12월 19일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의자)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여성 700여명이 참여해 댄스, 가요, 개인장기 등 잠재된 끼를 표출했다.

퀴즈게임과 모창·개그·춤 등이 있는 즉석 끼 발산대회에서는 중년이라고 믿지 못할 만큼의 활기 발랄한 모습을 보였다.





알림

도·여성소식

news

아산, 규방공예강좌 ‘인기’

여성들을 주대상으로 한 규방공예가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려 조선여인들의 숨결을 느끼게 했다.<사진>



7월 25일 농업기술센터 여성전문 능력발전 연구회는 기능 교육실에서 규방 공예강좌를 열어 20여명의 농촌여성들이 더위도 잊은 채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 실습에 푹 빠졌다.

이미용 생활개선담당은 “농촌여성들이 능력을 갖춘 전문인으로 사회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림

본원 교육소식

news

본원 여성교육부에서는 지난 2월 23일(목)부터 2월 24일(금)까지 본원에서 2006 지방선거 출마 예정 여성과 참모를 대상으로 「여성정치후보자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선거에 대비한 리더십 훈련과 실무적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의회에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앞서가는 여성후보의 선거 준비 노하우 소개, 선거 전략 기획 및 홍보, 연설 및 이미지메이킹 하기, 선거준비 기간 중 몸, 마음 다스리기,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출정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교육을 통해 교육관계자는 여성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함양, 도내 여성정치지도자의 정치적 역량 제고, 도내 여성정치지도자의 인적 교류 및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성공적인 창업을 꿈꾼다면,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알차게 준비하세요 ..

오는 3월27일부터 4월11일까지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2006년 여성 소자본 창업교육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2006년 여성 소자본 창업교육은 “돈 잘버는 여성 CEO로 성공하라”, “창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경제경영현황과 전망을 통해 본 여성창업”,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직업 적성검사”, “서비스업 이렇게 창업하세요”, “상권/입지 점포 선정”, “창업에 필요한 세무 상식” 등 여성창업 성공을 위한 핵심창업교육으로 기획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과정 정원은 30명이며, 교육 참가 희망자는 교육개시일 전까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연구실 교육팀 (042-825-2462)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농촌아동공부방지도자·숲해설사보조교사 교육일시

본원 여성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3일(월)부터 8월 22일(화)까지 충남 및 대전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인 「농촌아동공부방지도자·숲해설사보조교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알림

본원교육소식

news

본 교육과정은 지역내 고학력 전업주부들을 훈련시켜 지역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지도 인력을 양성 훈련하여 저소득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며, 숲해설사 보조교사로서 충남지역의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숲을 알리고 동시에 일을 통해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농촌아동공부방지도자 교육의 내용은 아동의 성장 발달 이해, 아동 학부모, 동료와의 상호작용 능력 증진, 아동지도사의 태도 및 가치관의 함양,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정보수집, 계획, 관리 능력 배양, 방과후 아동지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습득, 교육실습 등으로 구성하였고, 숲해설사보조교사 교육의 내용은 숲, 식물, 조류, 곤충에 관한 이해, 숲 체험 프로그램의 실제, 외국에서의 숲 체험 프로그램, 숲 해설사의 역할 및 자세, 현장학습 및 실습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원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빈곤가정의 취업활동을 돕고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복지와 충남지역의 자연환경을 널리 알려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지원 과정 교육실시

본원 여성교육부에서는 지난 8월 10일(목) 본원 세미나실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충남 지역의 광역·기초 여성위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여성의원 활동지원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지방의회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식을 높여 전문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의회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들간의 정보교환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성 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와 의정활동에의 적용방안 모색, 성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예산분석방법 및 효율성, 형평성 제고방안, 여성의원 경험사례 나누기, 여성의원간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충남의 여성의원들이 당을 떠나 한 자리에 모여 여성위원을 위한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며 이와 함께 지방의회 내에서의 여성위원의 활약상도 함께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여성교육부에서는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와 함께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지난 7.28(금), 8.25(금), 9.20(수) 3회에 걸쳐 금산 다락원 대강당과 인삼엑스포 주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일반,통역,수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행사 전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명감있는 자원봉사 인력을 배치하고, 기본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관람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자원봉사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엑스포 개최 의의와 인삼에대한 상식,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의 기본소양교육, 인삼엑스포장에 대한 이해, 인사법 및 내방객 응대법, 응급상황 대처 등의 직무 교육 그리고 현장확인 실습과 리허설 등의 현장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9.21부터 10.15까지 25일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에게 행사 참여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행사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동작구 여성단체 지도자 리더십 교육 실시

여성교육부에서는 지난 9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1박 2일동안 본원 세미나실 및 생활관에서 서울 동작구 여성단체활동가 38명을 대상으로 「여성단체지도자리더십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여성단체지도자로서의 성찰과 자기개발을 모색하고 여성단체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의원과 동작구 여성단체회원간의 실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지역에서의 여성단체의 역할과 지도자의 리더십, 열린 연극무대를 통해 본 여성리더십, 지역문제 찾고 해결하기, 친목과 연대를 위한 레크레이션, 단합등반대회 등으로 구성하였다.

최근 여성 지도력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교육인만큼 여성단체 지도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청사진을 어느 정도 제시해주는 교과 구성 방식으로 인해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농촌여성리더반 교육실시

여성교육부에서는 농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11월 27일(월) 12월 1일(금)까지 4박 5일동안 본원 세미나실 및 생활관에서 충남지역 농촌여성리더 23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비전을 세움으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성 리더를 양성하기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여성정책 및 여성의식 함양, 농업 농촌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능동적 대처 방안 모색, 자기 혁신 및 커뮤니케이션 개발, 창의력 기획력 및 조직능력 개발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농업기술원은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의 성적으로 농업해외선진지 견학 과정 교육에 6명을 선발하였다. 본원에서 실시한 교육을 통해 여성농민 지도자의 리더십 함양, 도내 여성농민지도자의 지역사회 영향력 확대와 인적 교류 및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기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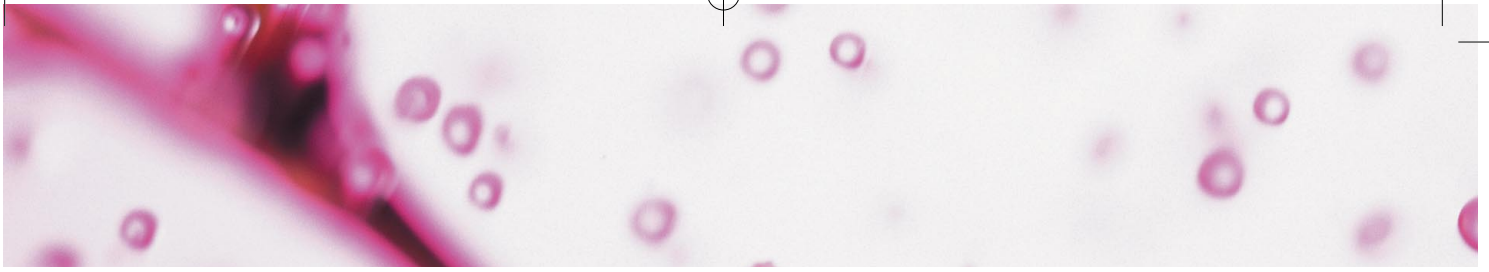
충남도,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방안” 열띤 토론
 - 26일 청양에서 『제18회 충남여성포럼』토론회 가져 -

충남여성포럼(선임대표 김경숙)에서는 7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청양 살레호텔에서 충남여성포럼회원 및 결혼 이민여성, 여성단체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 이민자 가정의 삶과 사회적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제18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개회식에 이어, 김경숙 선임대표의 인사, 충남도지사의 격려사, 청양군수의 축사,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원구 충남지사는 지영애 여성정책관이 대신한 격려사에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500여명의 이주여성과 자녀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문화 이해하기 ▲친정부모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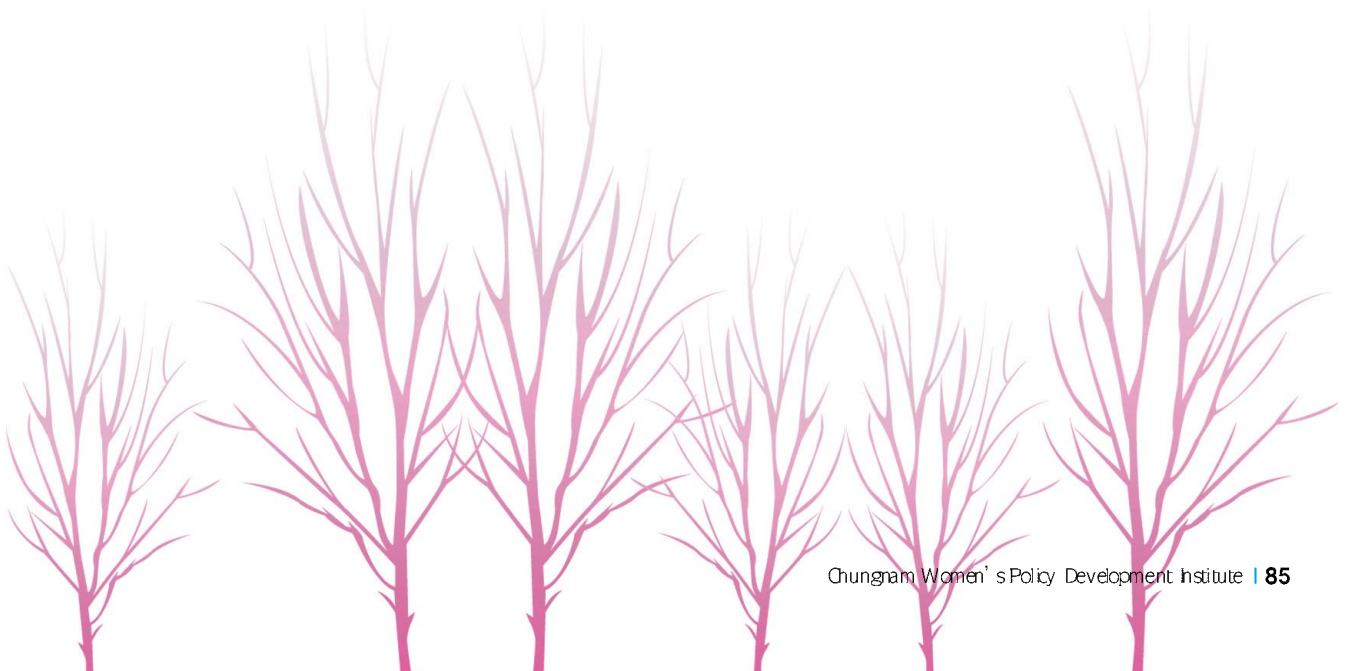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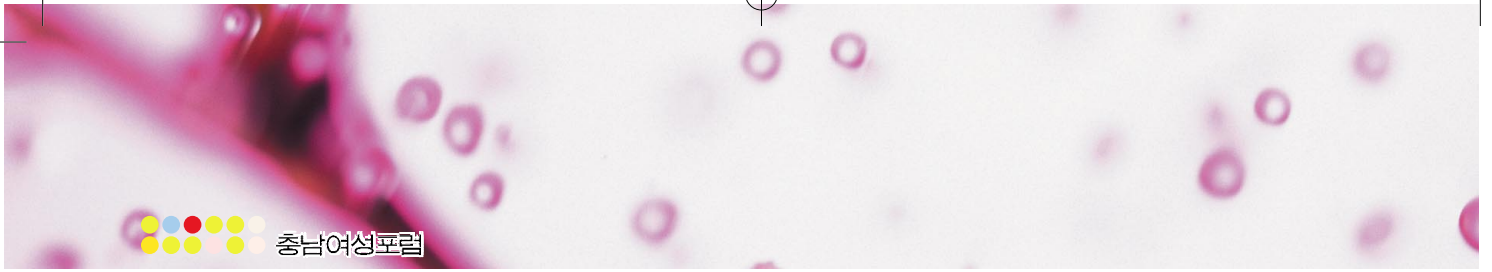
주기 등의 프로그램을 여성단체나 지역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김영주 연구위원은 “충남의 결혼 이민자 가정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결혼 이민자 가족의 어려움과 문제점은 “문화갈등과 의사소통, 자녀양육의 환경 취약, 법적 신분 불안,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을 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 이민자들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생활안정과 적응이라는 성격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 이성미 가정문화팀장은 “범 정부적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은미 사무국장은 “충남 결혼 이민자 가정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서는 일본출신 이주여성인 이순호씨와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인 마리에타씨는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이주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김명숙 청양군 의원은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최영선 충남여성포럼 사회복지보육분과장은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대하여 각각 토론을 벌였다.





충남여성포럼 토론회 가져

- 10일 공주대학교에서, 포럼회원 및 지역여성 200여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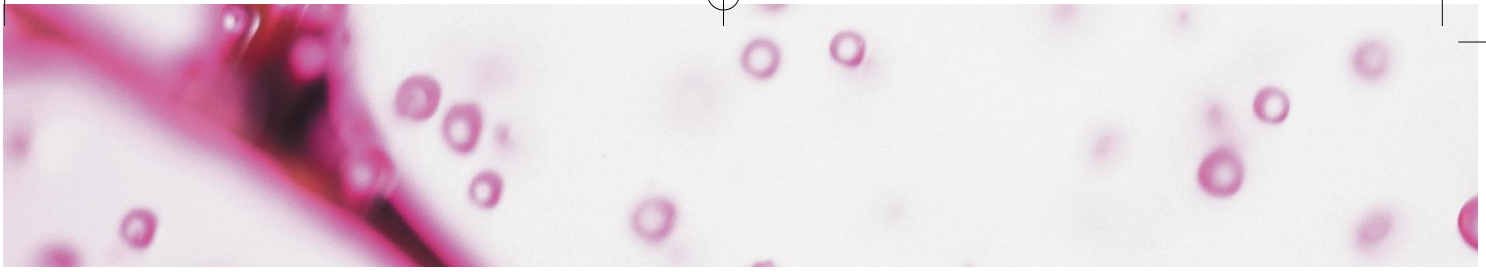
충남여성포럼(선임대표 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은 10월 10일 공주대학교 연구동 강당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 포럼회원 및 도와 시·군 여성의원, 지역여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포럼은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에서는 “한국 지방자치와 여성의정 발전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권오을 국회의원은 ‘한국 지방자치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유승희 국회의원은 ‘여성의정 발전의 방향과 과제’ 주제로 기초발제가 있었으며 ▲이어 유제일 한국 지방정치학회장과 충남여성의정발전연구회 여성의원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포럼에 앞서 김경숙 충남여성포럼 선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세력화를 통한 여성정치인 배출에 충남여성포럼이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완구 충남지사는 격려사를 통하여 “올해는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적 역할을 해 온 충남여성포럼이 정치의 장에서 역할을 해 냈으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는 충남 지방의회 여성당선률이 12.4%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충남여성포럼이 앞장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남여성포럼 토론회열려

-22일 백석대학교에서,포럼회원 및 지역 교육계인사 등 150여명참여-

충남여성포럼(선임대표 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은 11월 22일 백석대학교에서 포럼회원 및 지역의 교육계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충남여성포럼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갖고 1부 개회식과 2부 포럼으로 나누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기창 유관순연구소 소장은 ‘여성 지도자로서의 유관순’에 대하여 ▲이선자 충남도의회 의원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형 리더십’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이용규 백석대학교 교수와 정진현 청양대학 교수, 안병옥 아산교육청 과장, 지희순 정산중학교 교장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김경숙 충남여성포럼 선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급변하는 현 사회에서 여성의 리더십은 중요하고 또한 리더십은 자산이고 모든 분야와 지위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역량이며 성공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기창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에스더 또는 한국의 잔다르크로 불리는 유관순은 평범한 소녀로서 구국을 위해 한 몸을 바친 사람이며, 그는 여성의 몸으로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 하였고 옥중에서도 민족 독립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고 여성지도자로서의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알아봅시다

충남도, 『이달의 여성자원봉사왕』 구순예씨 선정

- 이미용, 병원안내, 생활보조, 놀이 및 여가지도 등 17회 132시간 봉사 -

♥ 노감및 소개

요즘같이 날씨가 제법 쌀쌀해 질 때는 누구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것들을 찾는 것 같다. 국물이 있는 따뜻한 음식이나, 거품을 걷어 내며 마시는 부드러운 카푸치노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호빵... 하지만 무엇보다 얼어있는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것은 봉사와 희생을 통해 남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다.

이번달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산시여성자원활동센터에 소속되어 2002년 이후로 꾸준히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거리를 만들어 오신 구순예님으로 선정되었다.

♥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TV를 통해 자원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면 저도 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여 왔죠”

가끔 TV를 통해 비춰지는 자원봉사자의 보람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이 부러워 내심 나도 자원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막상 시작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엄두가 안나 몇해를 망설였다고 한다. 또 어려운 결심을 통해 막상 시작하려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 시간도 많지 않아 아쉽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그러던중 빗해가 지나서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겨 여러 가지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2002년도 안면도꽃박람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열정이 생겨 자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행이 비슷한 시기에 서산여성자원활동센터가 문을 열어 자원봉사자로서의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아 어렵지 않게 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 가장 기억에 남는 분..

구순예님이 맡아 봉사하는 파트는 자원활동센터의 노인분야팀으로 서산에 흩어져 사시는 모든 노인분들이 구순예님의 봉사대상자이다. 모든 분들의 사정이 하나같이 어렵고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봉사를 나가게 되면 집안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또 지역이 넓어 이동거리가 길고 심지어 자동차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갈때마다 헤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헤드리고자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나면 몸살에 걸릴 때도 있다고 한다.

가끔 위급한 상황도 발생하여 마음을 조리기도 하는데 언젠가 한번은 봉사차 방문한 독거노인가정에 문이 잠겨 있어 밖에서 수차례 불러도 보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할머니가 중한 병으로 누워계신 것을 보고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후송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질문에 최근에 자원봉사로 방문하였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 주셨다. “외롭게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세요. 나이도 여든이 넘으셨고 살고 계신 곳도 산 밑이어서 봉사자가 들어갈때도 차로 들어가기 어렵고... 걸어서 30분정도를 터벅터벅 걸어서 올라가야 해요. 또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르는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시죠. 아드님도 장애가 있으셔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아 할머니 혼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가을 가뭄으로 산에서 조금씩 내려오던 물까지 끊겨 더 어려워지셨다고 한다. 다행이 소방서에서 간간히 식수를 지원해주어서 부족한 대로 생활하고 계시지만 봉사차 방문하면 돌아오는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아 조용히 눈물을 흘린적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도 가끔 찾아 뵙고 한동안 밀린 빨래며 음식을 준비해주고 돌아

올때면 손을 꼭 잡아주시며 나누는 짧은 눈빛에 수만가지 대화를 주고 받으신다고 한다.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봉사를 통해 효를 배운다고 한다. 구순예님의 경우도 부모님께 잘 헤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마음 아파 자식으로서 더 못헤드리는 부모님께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한다. “옛말에 효는 만가지 행실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사는것 같아요. 저도 그랬구요 만약 이런 봉사의 기회가 없었다면 저도 깨닫지 못했겠죠. 자원봉사는 제게 삶의 보람도 주었고 더불어 효라는 참된 가치를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면

“계획은 없구요. 그냥 몸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봉사만 할래요. 다행히 자원봉사에는 정년이 없으니까 한 60까지는 해야겠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웃으면서 답하시는 구순예님, 다행히 자원봉사에는 정년이 없어서 참 좋다고 말하며 어린아이처럼 맑은 미소를 보여주었다. 가끔 총무라는 직책 때문에 때로는 봉사이외에 여러 가지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변에 좋은 분들과 함께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못한다고 한다.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차가운 날씨는 몸과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의 손길은 얼어 붙은 목과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녹일수 있을 것이다.





1999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여성문제의 추이연구	7~12	정 책 개 발 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흐름과 지지체 정책과제에 비추어 본 충남여성정책	7~12		
충남여성의 의식실태 조사	7~12		
'99 충남여성통계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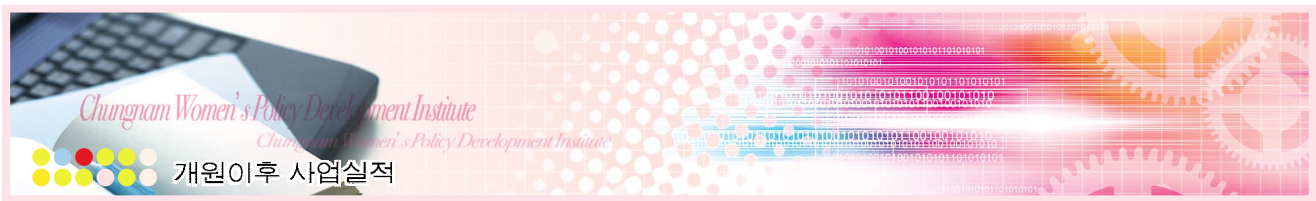
■ 세미나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주관부서
21세기 여성정책의 비전	'99. 9. 8	도청 대강당	300명	여 성 교 육 부
건강이 여성개발의 토대	'99. 9.2~11.9	시·군순회	2,000명	

2000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여성의 자원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1~12	정 책 개 발 부	
충남공직자 모성보호 휴가의 현실화 방안 연구	1~12		
충남여성농민 고용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연구	2~12		
충남지역 농촌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3~12		
충남여성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여성을 위한 직업모음	9~11		핸드북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 길라잡이	9~11		핸드북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4. 27	본원 대강당	50	정 책 개 발 부	세 미 나
충남지역 여대생 취업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5. 12	청양대 대강당	250		
농촌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워크샵	6. 23	본원 대강당	44		
개원1주년 기념 「지방자치시대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7. 14	본원 대강당	50		
충남 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9. 22	본원 대강당	36		
충남여성의 지방자치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10. 26	본원 대강당	20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담당 공직자 과정	4. 11	본원 대강당	31	여 성 교 육 부	
보건담당 공직자 과정	5. 17	본원 대강당	28		
여성상담원 교육과정	5. 26	본원 대강당	37		
道 공무원교육원 강의	6. 1~6. 13	공무원교육원	600		총4회
여성단체지도자 과정	6.16, 6.21, 6.29	본원 대강당	135		총3회
사회교육강사 과정	7. 28	본원 대강당	44		
여성체육인 과정	8. 22~8. 24	천안상록유스호스텔	75		
여성정보화 과정	9. 25~9. 29	연기군청 정보화교육장	20		
대전시 공무원교육원 강의	9. 25~9. 29	대전시공무원교육원	120		총3회
여성단체실무자 과정	10.13, 10.19	본원 대강당	87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과정	10. 17~11. 24	논산, 공주, 홍성, 부여, 연기군	122		총5회
부모교육 강사과정 강의	10. 19~10. 20	예산군 가야관광호텔	250		
부부농업인 교육과정	12. 18~12. 19	농협공주교육원	24		
중국교포와 결혼가정 문화강좌	12. 19~12. 20	부여청소년수련원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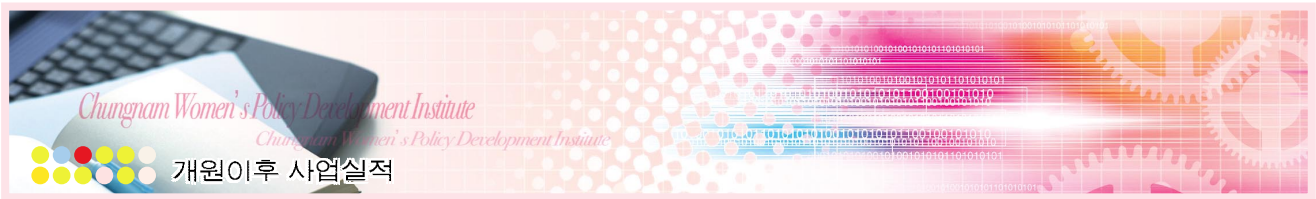
2001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사업의 유기적 연계방안 연구	1~10	정 책 개 발 부	
여고생 직업의식 강화교육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대한 연구	5~12		
충남여성 IT 전문인력 개발 방안	5~12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5~12		
충남 여성단체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	1~12		
충남 여성자원활동 수요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12		
충남 여성선도보호시설 개선방안 연구	1~12		
충남 보건소의 여성보건사업 현황과 과제	7~12		
여성노인인력의 복지자원화 방안 연구	1~10		
2001년 충남여성통계	7~12		
충남 여성의 정치의식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1~12	여 성 교 육 부	
충남지역 여성신지식농업인 발굴사례 연구	1~12		
충남지역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한 연구	1~12		
농촌지역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7~12		

■ 워크샵&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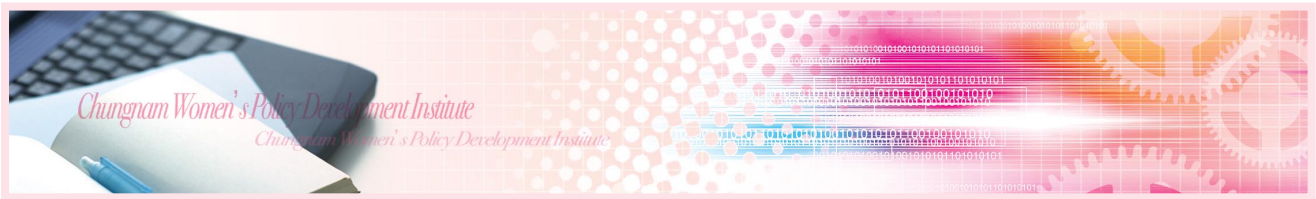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청남도 성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3. 9	본원 대강당	70	정책개발부	
농촌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워크샵	3. 29	본원 세미나실	67	"	
충남여성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워크샵	4. 17	본원 대강당	70	"	
성폭력 관련 담당자 워크샵	5. 10	본원 대강당	98	여성교육부	
개별화 교육 워크샵	6. 4	본원 대강당	200	"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개원2주년 기념 세미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회참여」	7. 6	본원 대강당	80	정책·교육부	공동수행
여학생·학부모 진로/직업의식 강화를 위한 camp	8. 6~ 8. 11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90 (45명 2회)	정책개발부	교육인적자원부 용역사업
전국 여성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10. 22	본원 대강당	80	''	여성부 후원
여성건강증진사업 발전방향모색 워크샵	10. 26	세미나실	40	''	

■ 교육사업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과정	2. 1~2. 21	천안YMCA강당	20		
여성경찰리더십 향상 과정	2. 9	본원 대강당	55		
여성공직자 과정	3. 22, 3. 30	본원 대강당	75		총2회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교육	4. 10~11. 30	공주야산, 당진, 예산, 태안 연기보령	202		총7회
성폭력전문상담원 과정	4. 18~5. 10	본원 대강당	42		
충남공무원교육원 교육	4. 23~5. 17	충남공무원교육원	210		총7회
여성자치대학	4. 25~10. 31	서산, 금산, 당진, 공주	259	여 성	총4회
여성·아동복지상담원 교육	6. 20	본원대강당	176		
여성창업 과정	7. 9~7. 13	본원대강당	50	교	
한부모가정 상담자원활동자 교육	7. 19~7. 20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0	육	
개별화교육 교원 연수	7. 23~8. 3	대전 서원초등학교	65	부	총2회
여성단체활동가 과정1기	8. 31	칠갑산자연휴양림	50		
여성단체활동가 과정2기	9. 7	보령정심원	150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1기	9. 13~9. 15	본원대강당 및 숙박시설	45		
문화유적지 안내도우미 과정	11. 5	본원세미나실	21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11. 8	공주대 시청각실	70		
선거자원활동자 과정	11. 16	본원대강당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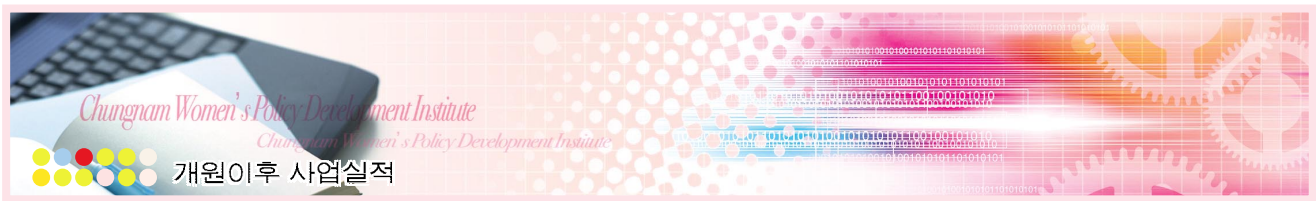


과 정 명	일 자	장 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여성정치역시 향상을 위한 워크샵	11. 16	본원대강당	100	여성교육부	
부모교육강사 양성 과정2기	11. 29~12. 1	본원 세미나실	20		
한부모가정 「청소년 지원과정」	12. 27~12. 28	본원 대강당 및 숙박시설	71		

2002년도 사업실적

■ 워크샵&세미나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역사속의 양성평등 제도 사례 연구	2~6	정책개발부	
충남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11		
충남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2~11		
충남 노인간병서비스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2~11		
충남여성 1366 네트워크 형성방안 연구	2~11		
충남 여성공무원의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연구	2~11		
충남여성 정보화 실태와 정보화 능력 향상방안 연구	2~12		
충남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과제	2~12		
충남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구	2~12		
충남과 구마모토회의 여성농업인 정책비교 연구	2~12		
충남 행정의 성주류화 실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2~12		
충남 여성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12		
여성을 위한 가족생활관련 법률안내	2~10		
충남지역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조사연구	2~10	여성교육부	
충남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실태와 대처방안	2~12		
충남지역 친환경농가의 여성농업인 지원방안 연구	2~12		
농촌지역 여성 평생학습 지원방안 모색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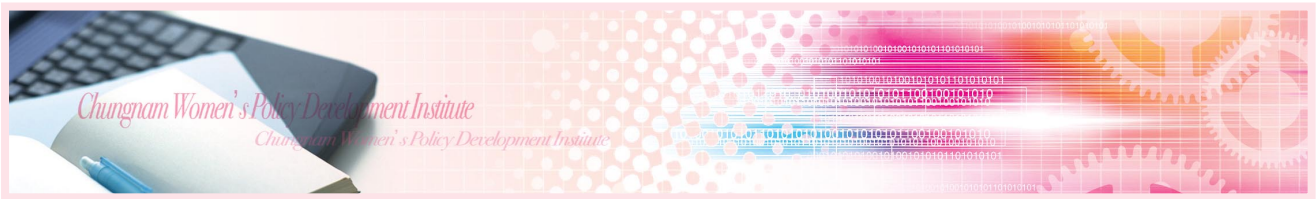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노인간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위한 워크샵	5. 22	세미나실	40	정책개발부	
충남여성1366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워크샵	5. 24	세미나실	40	"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중독대처방안 모색 세미나	5. 31	대강당	57	여성교육부	
개원 3주년 기념 「충남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7. 23	대강당	80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방안 모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1	"	
충남환경농가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고충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10. 31	홍성 홍동면사무소	42	여성교육부	

■ 교육사업

연 구 과 제 명	일 자	장 소	비 고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1차교육	2. 22	꽃박조직위	180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2차교육	3. 20	꽃박조직위	190
2002안면도국제꽃박람회 자원봉사자 3차교육	4. 10	꽃박조직위	201
성교육 자원활동자 과정	5. 27~5. 31	대강당	42
한부모가정 소모임 운영을 위한 여성문화활동가 과정	6. 24~6. 28	세미나실	26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여대생 캠프	7. 12~7. 13	대강당	62
공주시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를 위한 한마음 여름캠프	8. 1~2(1박2일)	대강당	40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	8. 28~8. 30	세미나실	31
여성농업인 정보화능력 향상과정	8. 29	공주농업기술센터	200
서산시 여성자원봉사학교	9. 2~9. 16	서산시청	112
여성공직자 과정 1,2,3차 교육	9. 30/10. 2/10. 4	대강당	18/27/27
2002실버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10. 7~11 본선 10. 18	사이버예선 청양대(본선)	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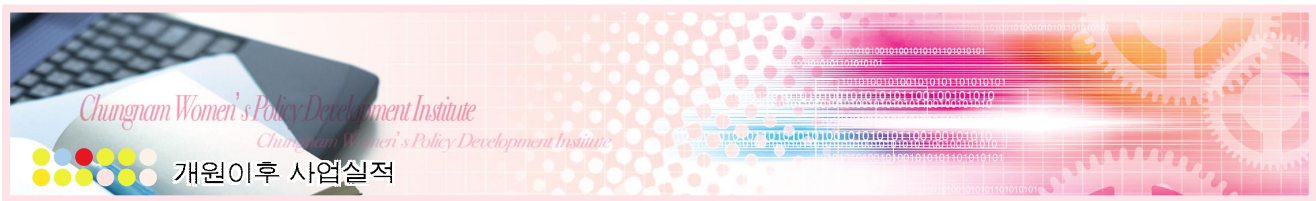
2003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지역 청소년의 양성평등의식 실태와 의식향상 방안 연구	'03. 1~ 8	정책개발부	
충남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증진 방안 연구	'03. 1~11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지원 방안 연구	'03. 1~12		
충남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소득증대 지원방안 연구	'03. 1~12		
충남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03. 1~12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03. 1~11		
농기도우미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03. 1~12		
충남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03. 1~12		
2003년 충남여성통계	'03. 1~12		
충남지역 여성소모임 활동사례 연구	'03. 1~12	여성교육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의 전문성 향상방안 연구	'03. 1~12		
초등학교 성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03. 1~12		
충남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03. 1~12		

■ 교육사업

주제	일자	장소	인원(명)	비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조직 활동가 교육	2.10-14	세미나실	27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3.25/26/27	대강당	74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4.28~5.2	세미나실	27	
2003주부인터넷 경진대회	예선 4.7~11 본선 4.25	청양대학	1,238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과정	6.9~7.1	세미나실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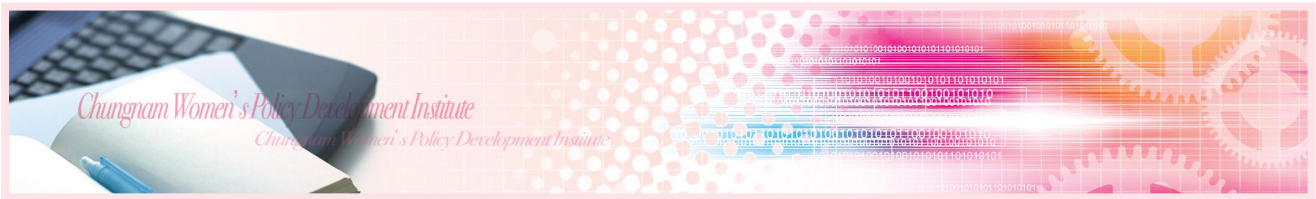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 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여대생 캠프	6.27~28	대강당	51	
당진군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9.16(1차), 9.23(2차)	당진군 가정 복지회관	118	
2003 실버인터넷 경진대회	9.22~9.26, 10.15	청양대학	446	
여성참여마을 만들기	9. 30	천안대	207	
아산시 여성단체활동가 교육	11. 3~4(1차) 11. 5~6(2차)	세미나실	81	
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	11. 11~12	세미나실	30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2. 3	대강당	62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3. 12	천안시민 회관 소강당	160	정 책 개 발 부	
충남여성농업인의 세력화 방안 모색 워크샵	6. 5	세미나실	35		
개원 4주년 기념 세미나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삶과 노인부양 문제	7. 7	대강당	200	여성교육부	
충남 재가 여성장애인 정책방향 모색 워크샵	7. 15	세미나실	26	정 책 개 발 부	
고령화 사회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방안모색 워크샵	9. 25	세미나실	30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출산안정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샵	10. 9	세미나실	10		
농가도우미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샵	12. 9	세미나실	10		



2004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농업정책 성주류화를 위한 충남여성농업인 생활양식 연구	'04. 1~10	정 책 연 구 실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04. 1~11		
이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04. 1~12		
충남 특수보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04. 1~12		
충남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 방안 연구	'04. 1~12		
충남과 구마모토현의 노인 복지정책 비교연구	'04. 1~12		
충남 여성공무원 리더쉽 향상 방안 연구	'04. 1~12		
충남 여성 통리장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	'04. 1~12		
충남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04. 1~12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고취교육 방안 연구	'04. 1~12		

■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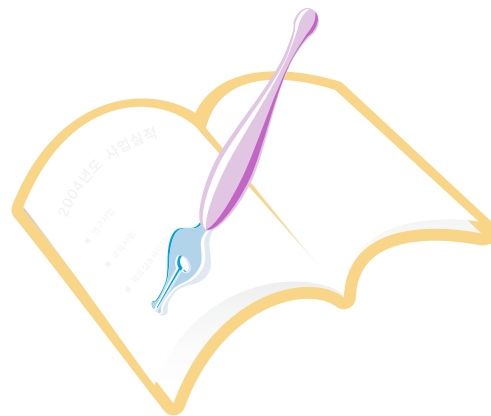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 고
여성정치지도자 양성과정	3. 10~12	본원 세미나실	26	
공무원 양성평등과정	4. 19~23(A조) 4. 26~30(B조)	본원 세미나실	81 (39명, 42명)	
2004주부인터넷경진대회	4. 19~4. 23(예선) 5. 7(본선)	사이버예선 청양대학(본선)	3,099	
성폭력전문상담원과정	5. 24~6. 4	본원 세미나실	42	
혼인귀화여성농업인 상담원 양성교육	5. 27~28	대강당 / 세미나실	43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교육	7. 12~27	대강당	59	
혼인귀화여성농업인 부부교육	8. 16~17	대강당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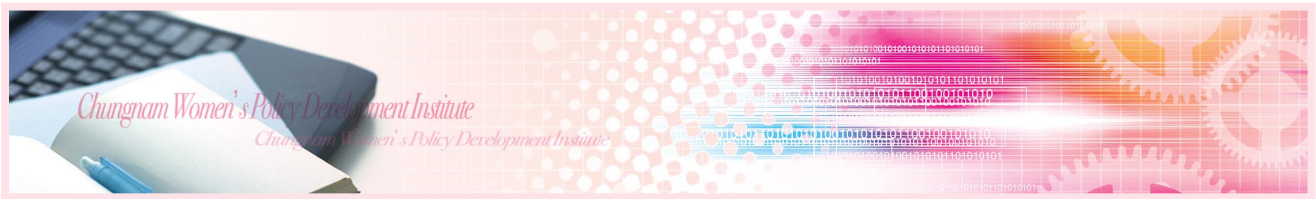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 고
서산시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9. 2~3	세미나실	27	
여성부 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 교육 (결혼초기)	9. 9~10	세미나실	20	
2030우먼리더십 캠프	9. 21~22	대강당	43	
2004실버인터넷경진대회	10. 4~13(예산) 10. 22(본선)	사이버예선 청양대학교	496	
여성부평등가족실천 프로그램교육 (예비부부)	11. 1~2	세미나실	24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1. 11	세미나실	30	
충남 혼인귀화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11. 18	예산 농촌진흥원	300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여성 통·리장 역할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2. 17	천안 쌍용 3동 사무소	7	정 책 연 구 실	
개원5주년 기념 한·일 여성노인정책 포럼	7. 07	선문대학교	120		
농촌관광마을 여성참여현황과 정책과제 모색 세미나	7. 09	세미나실	25		
충남 장애인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사업방향 모색 워크샵	12. 20		20		
성별영향분석평가 워크샵 개최	12. 23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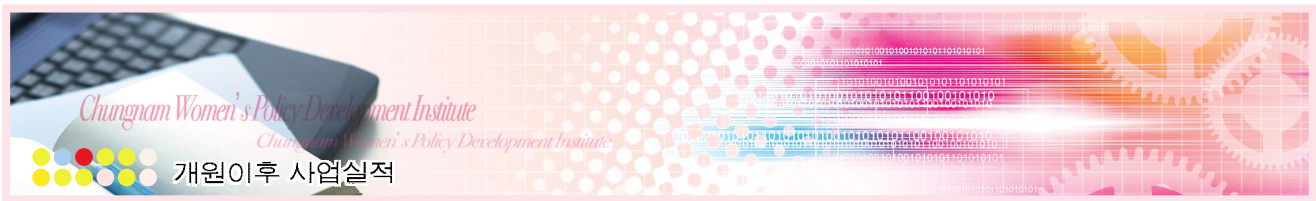
2005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05. 1~12	정 책 연 구 실	
충남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05. 1~12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실패요인 및 성공전략 연구	'05. 1~12		
고령화 사회대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05. 1~12		
충남 농촌여성의 평생교육 요구조사 및 교육만족도 향상방안 연구	'05. 1~12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성별형향분석 평가	'05. 1~12		
저출산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05. 1~12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 고
공무원 양성평등교육	3.14~3.18 4.11~4.15	세심당 세미나실	58명 (23,35)	
관악구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4. 18 ~ 19	세미나실	42명	
가정폭력 전문상담원과정	5. 9 ~ 5. 31	세미나실	37명	
2005주부실버정보화 경진대회	5. 9 ~ 13(예선) 6. 3(본선)	사이버경연 청양대학	1,268명	
농촌지역 방과후 교실 보조교사 교육	5.13~7. 8 (주1회 60시간)	세미나실	34명	
관광마인드 서비스 향상 교육	6. 1 ~ 6. 2	대강당	49명	
혼인귀화 여성농업인 문화체험 교육	6. 29 ~ 7. 20	세미나실	36명(19,17) 참여:10,16=26 총62명(29,33)	
혼인귀화 여성농업인부부 자녀캠프	7. 25 ~ 7. 27	세미나실	38명	



■ 교육사업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 고
2005년도 여성정치대학	9. 5 ~ 9. 14	본원 세심당	22명	
2005충남장애인정보화 경진대회	10. 28 ~ 11.1(예산) 11.17(본선)	사이버경연 충남인력개발원	500명	
혼인귀화 여성농업인 축제	2005. 11.2		350명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2005.11.30		2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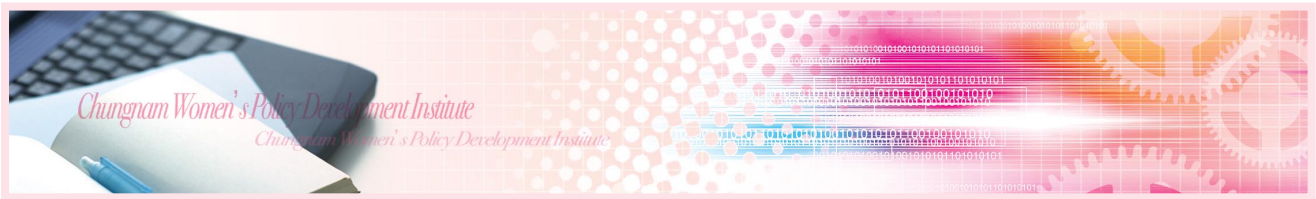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비고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7. 19	세미나실	30	정 책 연 구 실	

2006년도 사업실적

■ 연구사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기초자치단체 시범 성별영향 분석	1~12월	정 책 개 발 부	
가정내 남성의 행동변화 프로그램 개발	1~12월		
충남도청 이전지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 설치방안에 관한 연구	1~12월		
충남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태 및 기능역할 강화 방안	1~12월		
초등학교 농촌지역 방과후 교실 설치방안 연구	1~12월		
충남 공무원 양성평등의식 교육의 성과와 과제	1~12월		
충남 여성문화인력 활용방안 연구	1~7월		
충남 국제결혼 가족의 생활실태와 복지향상방안 연구	1~12월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부서	비고
충남여성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지표 개발	1~12월	정책개발부	
자활사업의 정착화를 위한 충남자활사업 참여여성지원방안 연구	1~12월		
농촌 1·3세대의 아동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1~12월		
2006년도 충남여성통계	1~12월		
충남여성취업실태 조사연구	1~12월	교육실	
지방선거 여성후보자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연구	1~12월		
충남지역 여성지원활동가 활성화 방안	1~12월		

■ 교육사업

주제	일자	장소	인원(명)	비고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교육	2.23~24	세미나실	19	
여성소자본 창업과정 교육	3.27~4.11	세미나실	35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	4.17~4.21	세미나실	27	
성폭력전문상담원과정 교육	5.15~26	세미나실	29	
공무원 양성평등과정(1기)	6.12~16	세미나실	27	
공무원 양성평등과정(2기)	6.19~23	세미나실	17	
사회적 일자리 숲해설사 양성과정 교육	7.3~8.22	세심당	19	
사회적 일자리 농촌지역 아동센터 지도사 교육	7.3~8.22	세미나실	23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자 1차교육	7.28	금산다락원	400	
여성정치지도자 여성위원 연찬회	8.10	세미나실	18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자 2차교육	8.25	금산다락원	400	
동작구 여성단체지도자 연수	9.14~15	본원세미나실	40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자원봉사자 3차교육	9.20	엑스포 현장	400	
양성평등강사 양성교육	9.25~9.29	세미나실	15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연찬회	11.6	세미나실	22	



주 제	일 자	장 소	인원(명)	비 고
농촌여성리더반 교육	11.27~12.1	세미나실	23	
공무원 성인지정정책형성과정	12.4~8	세미나실	15	

■ 워크샵&세미나

주 제	일자	장소	인원(명)	추진부서
개원7주년 기념세미나	7.20	대강당	150	정책개발실
2006년도 성별영향평가 워크샵	9.20	세미나실	35	정책개발실
충남국제결혼가족 지원기관의 연계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샵	12.13	세미나실	10	정책개발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 워크샵	12.18~19	지리산 리틀프린스	30	정책개발실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워크샵	12.22	세미나실	10	교육실

